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박사 학위논문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timacy of the Middle
Aged Couples
- Based on Grounded Theory -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송경옥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timacy of the Middle
Aged Couples
- Based on Grounded Theory -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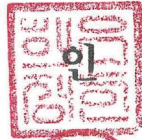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송경욱

송경옥의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송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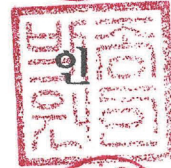
심사위원 허은정



심사위원 권희경



심사위원 박종원



심사위원 정민자



울산대학교대학원

2021년 7월

목 차

<감사의 글>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정의	5
II. 이론적 배경	9
1. 중년기	9
1) 중년기의 개념	9
2) 부부관계	10
3) 중년기 부부관계	11
2. 친밀감	12
1) 친밀감의 개념	12
2) 부부친밀감	13
3. 근거이론	15
1) 근거이론 정의	15
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19
4. 선행연구	20
1) 중년기 부부친밀감	20
2) 부부친밀감 하위요소	22
3)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23

4) 부부친밀감 선행연구	23
---------------------	----

III. 연구방법 30

1. 근거이론적 접근	30
2. 연구과정	31
1)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31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2
3) 면담 질문지 작성	34
3. 연구절차	36
4. 자료수집	38
1) 자료수집과 분석	38
2) NVivo R1 활용	40
5. 신뢰도와 타당도	41
6.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43

IV. 연구 결과 44

1. 개념 범주화 및 패러다임 요소	46
1) 중년기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개념과 범주	46
2) 연구참여자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해석적 기술	52
2. 축코딩	95
1)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범주 분석	95
2) 과정분석	101
3. 선택코딩	104
1) 핵심범주	105
2) 이야기 윤곽 전개	106

V. 논의 및 결론 108

1. 요약	108
2. 논의	109
3. 결론	111

참고문헌	114
부록	126
ABSTRACT	133

표 목 차

<표 1> Strauss & Corbin 근거이론 특질 판단 기준	17
<표 2> 개방코딩의 과정	18
<표 3> 선택코딩의 과정	19
<표 4> 부부친밀감 관련 선행연구	28
<표 5>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33
<표 6> 면담질문지	35
<표 7> NVivo R1 분석 결과	46
<표 8> 개방코딩 패러다임	47
<표 9>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97
<표 10>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98
<표 11>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98
<표 12>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99
<표 13>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100
<표 14> 결과의 속성과 차원	100
<표 15>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106

그림 목 차

[그림 1]	Strause & Corbin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19
[그림 2]	연구진행과정	37
[그림 3]	연구절차	39
[그림 4]	자료분석과정	39
[그림 5]	근거이론의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	40
[그림 6]	부부친밀감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44
[그림 7]	부부친밀감에 대한 Word Tree 분석 결과	45
[그림 8]	배려와 헌신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60
[그림 9]	의사소통과 지지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63
[그림10]	신뢰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67
[그림11]	정서적 교류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72
[그림12]	애정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80
[그림13]	중년 부부의 친밀감 패러다임 모형	96
[그림14]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과정분석 모형	102

감사의 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저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한 자양분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있기까지 부족한 체계 용기와 희망과 격려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끝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정민자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첫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처럼 근거이론이라는 학문에 들어설 때의 두려움은 교수님의 너른 품 안에서 새로운 학문의 씨앗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혜안으로 저의 연구가 좀 더 값지고 귀하게 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글을 다듬고 쓰도록 지도해 주신 송혜림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연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해주신 허은정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논문의 맥락과 놓치기 쉬운 부분을 완성도있는 논문이 되도록 심사와 고견을 주신 권희경 교수님, 박종원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퇴근 후 논문방에 오면 같이 논문을 쓰며 힘을 북돋아 준 논문동기 김미애 선생님, 이경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로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지해준 장현희 선생님, 서현실 선생님, 유순희 선생님과 가족학연구실 후배님들, 똑똑하고 성실한 학부 학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의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자가 되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긴 과정을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준 남편 이상규님. 당신이 전해주는 따스한 손길과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이며, 살아갈 날을 더욱 기다리게 만들어 주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지훈, 사랑하는 딸 수현. 너희 덕분에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맙고 사랑해!

동생이 공부한다고 물심양면 도와준 언니 송경미님, 송경숙님, 송경이님,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동생 송태겸님, 막내딸이 공부한다고 늘 마음 써주시며 지지해주신 나의 엄마, 아빠.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

2021년 7월 송경옥 올림

국 문 초 록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송 경 옥
지도교수 정 민 자

현대 한국의 가족은 부부중심 체계로 이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부관계의 내적 갈등과 적응의 문제가 있어 중년기 이후의 부부관계가 불안하다. 단적으로 황혼이혼 비율이 높아져 현재 전체 이혼의 37.2%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중년기 이후의 부부관계에서 안정적 요소인 친밀감과 갈등조절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 부부가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하며, 그 과정 및 그들의 친밀감 형성 요소와 전략들을 분석하여 이론적 근거를 찾아 내고 추후 중년 부부의 친밀감 경험과정에 작동하는 긍정적 요소 및 과정들을 탐색하는 상담 현장과 부부 친밀감 향상을 위한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 40~64세 중년 부부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고,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한 뒤 그 내용을 전사하여 Strauss & Corbin(1998)의 자료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및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첫째, 개방코딩에서는 181개의 개념화, 40개의 하위범주, 1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분석결과, 중년 부부의 친밀감의 인과적 조건은 ‘내적 동기’, ‘결혼을 선택’이었고, 맥락적 조건은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 ‘배려와 헌신’이었으며, 중심현상은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로 나타났다.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유성’이었으며,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고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중재적 조건은 ‘성생활’, ‘애정’이었고, 결과는 ‘노력하는 부부’, ‘이해하는 부부’, ‘의지하는

부부'로 나타났다.

둘째, 과정분석을 통하여 중년 부부의 친밀감 과정은 '보살핌의 단계',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 '대안찾기 단계',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로 분석되었다. '보살핌의 단계'는 참여자들이 중년 부부로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배우자의 행동과 서로에게 맞춰주고 챙겨주는 행동, 특히 아플 때 내 곁에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행동들로 나타났다.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서로의 얘기를 주고 받으며 수용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으로 배우자를 더 챙기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매일 옆에 함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든든함을 주었고 배우자의 존재 자체로서 부부관계에서 힘이 난다고 하였다.

'대안찾기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취미를 함께하는 등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위해 서로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인정하였으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중재적 조건인 성생활이나 애정에 따라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는 갈등해소를 하고 더욱 견고해진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니 부부가 운명적인 관계이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노후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로를 위해주고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하며 서로 신뢰하면서 지금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다.

셋째,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년 부부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부친밀감임을 확인하였다.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이런 부부친밀감이 없이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참여자들은 부부친밀감의 의미가 삶을 함께하는 이유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활력소, 자신감의 원천, 행복자체라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의미이며 가치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면 부부친밀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은 중년 부부의 부부친밀감을 촉진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지지체계 활성화는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 부부를 위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가족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넷째, 중년 부부가 행복한 부부의 삶을 영위하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친밀감이다. 특히 부부친밀감의 요소인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 ‘배려와 헌신’,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 ‘성생활’, ‘애정’,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은 결혼생활에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요소들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 각각의 과정은 진보와 퇴행을 반복하면서 나아가고 부부관계는 일생을 두고 완성해가는 진행형의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년 부부의 결혼생활동안 경험하는 친밀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중년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상담 개입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가족서비스, 가족연구 분야에서 부부들의 갈등해결을 넘어 행복한 결혼생활 영위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 용어: 중년기, 부부관계, 친밀감, 근거이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년기는 시작시기와 끝 지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생활주기를 기준에 포함하였으나, 최근 생활양식의 다양화로 그 기준이 배제되고 연령만이 기준이 되었다(고기숙, 2003). 인생은 그 시기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의학의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삶에서 중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년기는 개인·사회적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된 시기로 가족·사회·국가·정치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년기는 인생의 절정기이기도 하지만 생리적 변화와 육체적 노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시기이다(임선영, 2014).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전환기라는 특성을 갖는 이 시기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는 진수기로 빈 둥지(empty nest)를 많은 부모들이 경험하게 된다.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결혼 후 출산·육아가 대체적으로 끝나는 시기이며, 사회 구성원 자격과 역할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계층이다. 이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많다. 즉, 중년은 인간 발전의 다른 단계에 비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오태균, 2004). 중년이 되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성격이 부부 중심으로 변화한다. 남편이 부양자 역할을 하고 아내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등 바쁜 시기를 보냈던 자녀양육기를 지나고 중년이 되면 부부 모두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부부관계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중년 부부의 개인적·외적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그 기대와 요구가 다를 때 부부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다(이동숙, 2006). 또한 현대 중년기는 이전 세대와 달리 다각화된 사회적인 역할로 가족구조의 다양성, 페미니즘 운동,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내·외부적인 변화들에 직면하면서 부부갈등과 이혼 등 중년기 부부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오제은, 2013).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위기의 경험은 중년기의 전환기적 취약성을 증폭시키며 중년기와 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부부관계의 갈등과 관계의 질은 부부관계 자체뿐만 아니라 자녀·노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 내 다양한 관계 맥락들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김미라, 하영윤, 2020).

지금까지 부부 상호 간에 만족한 정도에 대해 결혼만족, 결혼적응, 애정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결혼만족도였으며, 부부관계를 가족 중심에서 바라보고 결혼생활을 평가한 것으로 부부의 정서적인 관계의 질을 표현하기에 피상적이고 광범위한 면이 있었다. 이에 비해 부부친밀감은 정서적 상호작용과 상대방과의 공유 정도의 개념으로서 비언어적 감정과 생각을 강조하여 긍정적 상황뿐만 아니라 갈등 환경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유사성과 차이를 알아가기 위해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경희, 1995). 따라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출 때, 상대방의 결점을 자율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실제적인 친밀감과 만족감을 표현하는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도보다 깊이 있는 부부관계성을 나타내기에 더 적절한 개념이다.

부부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단순한 쌍방향 관계로 보기에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부관계의 지속은 성장 경험이 다른 개인이 만나 결혼생활을 통해 시작하고 유지하는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따뜻함, 편안함, 지지 등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이를 이타적으로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관계가 작용하여 2자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친밀해진다고 할 수 있다(최규련, 2015).

오늘날 한국의 부부관계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황경애, 2001). 동반자적 부부관계로 시대가 바뀌는 가운데 중년기 부부도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년 부부를 주제로 한 연구 역시 적응이나 만족도보다는 친밀감에 대한 접근이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년기 부부의 친밀감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와 부부관계의 가치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많이 달라진 현대 가족에서는 가치관의 차이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부갈등을 자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적 지지자이다. 배우자는 정서적·물리적·육체적 도움, 그리고 자존감 상승, 심리적 안정감 상승 등에 영향

을 미치며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권오균, 허준수, 2010).

박봉순(2010)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부부관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서 부부친밀감을 강조한다.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인 부부친밀감(이경희, 1998)이 부부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친밀감이 없는 상황에서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혼 사유로 부부간 친밀감 결여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Moss & Schwebel, 1993; Waring, 1984).

2020년 혼인·이혼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혼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미만 이혼은 감소한 반면 20년 이상 이혼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은 전년대비 10.8% 증가, 10년 전에 비해 2.2배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 부부의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 이하 이혼이 1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연령은 여자 46.0세, 남자 49.4세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7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여자는 40대 초반이 8.6건, 남자는 40대 후반이 8.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1).

통계청 자료(2021)에 의하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결속력은 예전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 가족의 핵심체계인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중년기 부부관계는 전통적·제도적 부부관계에서 동반자적 부부관계로의 변화에 적응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부발달에 핵심 요인으로는 부부 간의 배려, 헌신, 의사소통, 갈등 해결 기술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면서도 연구가 부족한 것이 부부 친밀감(intimacy)이다(Blandon, 2005; Prager, 1995; Clark & Reis, 1988). 친밀감은 부부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작용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동기적 측면을 내포하는 다차원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Blandon, 2005). 친밀감은 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McAdams, 1985), 결혼 안정성과 결혼 만족(Talmadge & Dabbs, 1990), 자녀양육 방식(O'Brien & Peyton, 2002; Coleman & Karraker, 2000)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Tolstedt

와 Stokes(1983)도 부부의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이 부부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부부친밀감이 결여되었을 때, 부부갈등이 심화되고 결혼불안정성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부부관계는 다른 어느 관계보다 친밀하고 밀접하며 또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부부관계처럼 감정적으로 밀착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가족 상호 간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즉, 중년기 부부관계의 부정적인 결과는 가족을 이루는 하위체계인 부부관계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개인체계와도 역기능적인 체계가 되므로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부부 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건강한 부부관계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중년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경험하게 되는 친밀감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고자 할 때, 심층면담을 통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부적 관점의 질적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연구과정은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 중 집단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적절한 이론이 없거나 기존 이론을 수정 또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다. 근거 이론은 개인의 행동과 사회현상이 항상 변화하고, 개별화되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동성, 김영천, 2012)이기 때문에 중년 부부의 부부친밀감 과정을 이해하며 이를 통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통해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실체이론을 명확히 하고 부부의 친밀감 수준 파악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부부친밀감을 강화하여 가족관계의 토대가 되는 부부관계를 위한 가족서비스 및 부부상담과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가족연구에서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해 분석을 위해 중년 부부의 친밀감이 어떠한지 단계별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친밀감 요인 및 과정, 그 결과들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중년기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활 연령에 의한 구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비거스트(Havighurst, 1972)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정도와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물학적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인생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는데 30세부터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 에릭슨(Erickson, 1994)은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정체감 형성과 달성해야 하는 심리적 과업을 연결시켜 인생의 주기를 구분하면서 34세부터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년기를 김명자(1989)는 40~59세, 김태현과 최정혜(1990)는 30~59세, 김애순(1991)은 35~60세, 이인정과 최해경(2004)은 성인기가 끝나는 40세에서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64세까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연령 40세에서 64세까지 한정 짓는다.

2)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두 남녀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결합을 바탕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형성하여 부부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아내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인간관계를 말한다(김형일, 2008). 또한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독특한 인연에 의해 맺어지는 것으로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가장 깊은 친밀함을 나눈다(김남연, 2013).

Parsons(1959)는 역할구분이론에서 아내의 역할을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 남편의 역할을 수단적 역할(instrumental role)이라고 하였다(송명자, 2008 재인용). 수단적 역할은 가족 내의 균형감 유지와 가족 밖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를 수단적으로 형성하는 것이고, 표현적 역할은 가족구성원 간의 통합관계 유지와 긴장완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구분이론이 모든 가족유형을 설명할 수 없으며 수단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이 한 사람에게서 양립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역할구분이 부부에게 행복과 통합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평등하고 유연한 역할수행을 할 때 부부관계의 성공과 통합이 가능하다(송명자, 2008).

부부관계의 질은 부부의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있으며 부부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긍정적 요인이다(정옥분, 2013).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결혼적응, 결혼만족, 부부의 애정, 부부친밀감 등의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다. 결혼적응은 가족 내 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신혼기 부부나 이주해 온 여성이 주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김순옥 외, 2015; 김미원, 2014; 김지미, 2014). 결혼만족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해, 부부관계와 자녀, 친정과 시댁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 간의 관계의 질을 설명하기에는 광범위하다(박상화, 2017; 이경희, 1995). 이에 비해 부부친밀감은 부부 두 사람만의 감정과 인지적 요소, 행동의 상호 공유성의 관계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우명순, 2008; 양진선, 2004).

가족의 건축가인 부부는 그들만의 원가족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원가족에서의 어린 시절 경험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청사진으로 작용한다(최광현, 선우현, 2016). 남녀 간의 결혼을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제도적 결혼에서 우애적 결혼으로 변천해 왔고, 그에 따라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개념도 역할이나 권력에 제한되지 않고 애정, 만족감, 조화, 적응과 같은 개념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원가족에서 성장하여 결혼을 통해 다시 한 가정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체계로 상호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상호 영향을 받는 커플 체계(박수진, 이인수, 2015)로 변화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성한다(J. Larson & T. Holman, 1994; 정문경, 김병석, 2012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를 결혼을 통하여 맺어진 우애적 관계이자 상호작용하는 커플로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루는 체계로 본다.

3)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은 부부 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거나 유사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서로 가까워지려는 과정이다(Hatfield, 1984). 또한 부부 두 사람 간의 가깝고도 밀접한 느낌으로, 부부 두 사람이 경험하는 헌신과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의 정도(Moss & Schwebel, 1993)이며, 부부가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상대의 결점까지도 수용하는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밀접함의 정도를 뜻한다(이경희, 1998).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에 기반하여 부부친밀감이란 부부 간 애정이나 신뢰, 헌신, 함께함 등의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관계의 두 사람이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상대를 수용하고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과 갈등 해소, 함께함, 헌신의 정도로 정의한다. 그리고 부부친밀감은 부부관계에서 가깝게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하여 서로 노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4) 근거이론

근거이론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자료의 요약에 머무르지 않고, 자료 속에 나타난 현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이론을 도출하려는 연구방법이다. 근거이론은 사례 자체를 상세하게 기술하기 보다는 청취와 관찰 결과 얻을 수 있는 개별사상에서 공통요소를 추출하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델의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연구방법과 차이가 있다. 근거이론은 그 현상의 구조와 골격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若林, 2015).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이라는 3가지 과정을 거쳐 자료 속에서 개념을 추출하고, 추출한 개념을 통합하여 이론을 완성해나간다. 코딩이란 사건과 사건, 개념과 사건을 비교하여 자료를 개념화하는 작업이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분석하는 최초 단계로 어떤 선입적 코드를 갖지 않고 지속적 비교 분석을 한다. 축코딩은 개방코딩 후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정렬하고, 범주와 하위

범주로 연결고리를 만든다. 축코딩은 조건과 상황, 행동이나 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포함하는 코딩 패러다임을 활용한다(Glaser, 1998). 선택코딩에서 범주의 관련성을 파악할 때 중심이 되는 범주를 핵심범주로 설정하고 다른 범주는 범주로 한다. 핵심범주는 추상도가 높은 현상의 이름을 설정한다. 작성된 범주의 관련성을 개념을 사용하여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추상도가 높은 현상을 나타내는 이야기 윤곽이 되고 이론이 된다. 근거이론은 개인의 행동 그리고 사회적 현상이 주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고 개별화되며,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에 따른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이동성, 김영천, 2012)이기 때문에 중년 부부의 친밀감을 이해하며 이를 통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데 적합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 내부자적 관점에서 중년 부부들의 친밀감이 어떻게 일어나고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년 부부의 삶 속에서 친밀감이 어떤 조건들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사용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년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친밀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실체 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1) 중년기의 개념

중년기에 최초로 관심을 가진 융(Jung, 1954)은 중년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로서 40세 전·후반을 중년기로 보았다. 그는 35~40세 사이에 중년기가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시기요, 후반부는 내면세계에 적응하는 시기라고 하였다(김성민, 이기춘, 2000 재인용).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활연령에 의한 구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비거스트(Havighurst, 1972)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정도와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물학적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인생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는데 30세부터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한다. 에릭슨(Erickson, 1994)은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정체감 형성과 달성해야 하는 심리적 과업을 연결시켜 인생의 주기를 구분하면서 34세부터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년기를 김명자(1989)는 40~59세, 김태현과 최정혜(1990)는 30~59세, 김애순(1991)은 35~60세, 이인정과 최해경(2004)은 성인기가 끝나는 40세에서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64세까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중년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전에는 생활주기를 기준(막내자녀의 독립이나 취업, 결혼 등)에 포함시켰으나 최근에는 결혼연령과 자녀유무 등의 생활양식의 다양화로 그 기준은 배제되고 연령만이 기준이 되었다(고기숙, 2003). 연령기준도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사용되어 시작지점을 40세 이후(고기숙, 2003; Levinson 1978)로 정하기도 하고, 35세(Ryan & Caltabiano, 2009; Gould, 1978)로 정하기도 하는데, 40세부터 신체노화, 체력상실 등 생물학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40세가 시작지점으로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결지점에 대해서는 노년이 시작되는 65세 이전인 60세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김남연, 양난미, 2014; 안태용, 2013; 고기숙, 2003; Levinson, 1978), 최근에는 65세까지 연장하여 보기도 한다(남순현, 2009; 김애순, 윤진, 1995). 중년기를 신체적 나이보다는 인생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35세에서부터 55세까지를 중년기로 보았는데, 전문직 종사자들은 중년기를 40세에서부터 55세로 보았다(윤진, 1985). 김동배와 권중돈(2000)의 연구에서는 40세에서 64세를 중년기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노화가 시작되는 40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되는 65세 전인 64세까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부부관계

부부는 가족을 이루는 가장 최소 형태이자 기본적 사회단위이다. 현대 가족은 서로의 선택으로 결혼한 부부가 핵가족 형태로 중심이 되어 부부 간의 사랑이 강조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50대 이후의 부부관계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조혜숙, 2012). 부부의 긴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 간에 인격적 조화를 이룸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결혼생활의 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문혁준 외, 2012).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는 가장 중요한 축이며, 부부는 가족의 설계자이다(Satir, 1983). 부부관계가 만족스런 결혼생활은 세대와 세대의 연결과 가족문화의 계승,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어(최연우, 백용매, 2010),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정과 유지,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부부관계란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남녀 두 사람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변화·성장하는 남녀 간의 상호작용관계(Mace & Mace, 1976; 유영주 외, 2010 재인용)’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성장 환경 속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의식 또는 제도에 의하여 경험하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이며, 생리적·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유영주 외, 2010). 따라서 부부관계는 ‘다른 성장환

경 속에서 성장한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사랑을 전제로 친밀한 결연관계를 맺고, 서로의 다양한 욕구를 기대하고 충족하면서 변화·성장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비혈연적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중년기 부부관계

중년기 부부는 20년 이상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감 속에서 바쁜 삶을 살았으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함으로써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은 가라앉은 채 한 쌍의 부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삶의 과정 중에 중년기 부부는 어느 시점에서 권태로 인해 결혼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신의 결혼을 재평가하고, 그들의 소유가 안정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더 나은 파트너를 찾고자 갈등하기도 한다. 결혼생활에서 권태는 배우자의 약점을 더 잘 파악하게 한다. 더욱이 자녀가 결혼해 더 이상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성생활이 권태로울 때 결혼생활이 불안하고 위기에 처했다고 결론짓고 권태로운 결혼을 끝내려고 이혼을 결심하거나 둘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중년기 외도에 빠지기도 한다(Collins, 2008).

중년기 부부들은 결혼 초기에 정해진 패턴을 반복한다. 더욱이 처음에는 거의 수없이 많은 원인들로 작은 불만들이 쌓이고 수백 번 반복되면서 마침내 부정과 결혼 파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든 중년기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중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결혼 생활의 발전을 위한 잠재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년기 부부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결혼 후반기를 친밀한 우정을 쌓고, 성인이 된 자녀와 손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결혼의 후반기는 인생에서 최고의 시기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 이 시기는 성숙한 관계를 위협하는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한다(White, 1995).

중년기 부부는 그동안 부부관계 패턴을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위해 부모역할, 자녀역할을 잘 하기 위한 부모역할 중심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중년기 부부는 이 시기의 부부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부부관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부모·자녀역할 중심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는 부부관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년기 부부관계에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전통적인 가부장적 수직적 관계로서가 아닌 함께 여생을 보낼 동료로서의 상호성에 근거한 관계, 동반자의 관계로 전환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이기석, 2015).

중년기 부부관계의 향상은 부부의 완전한 신뢰에 바탕을 둔 성숙한 관계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대부분 관계의 미숙함에서 시작된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중년기 부부들은 올바른 관계를 기대하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부관계는 부부관계 중심의 동반자의 관계로 정의한다.

2. 친밀감

1) 친밀감의 개념

‘친밀감(Intimacy)’의 어원은 라틴어 ‘Intimus’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것은 ‘within’이라는 의미의 ‘intus’의 최상급이다. 친밀하게 된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앎과 타인에 대한 앎이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Snyder, 1997). 따라서 친밀한 관계 경험이란 다른 사람의 본질적인 깊이를 지켜보고서 상대방을 전적으로 깊이 내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Oden, 1974).

친밀감의 개념연구를 살펴보면, 친밀감(intimacy)이란 사랑의 정서적 요소로써 누군가와 가깝게 느끼는 감정,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따뜻한 감정 그 자체(Sternberg, 1986),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신체적 밀접함과 헌신의 강도(Moss & Schwebel, 1993)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친밀감을 ‘사랑받는 사람에게 수용받는 즐거움이며, 힘의 관계가 아닌 동등함의 관계’라고 정의(Beavers, 1985)하였다.

Mills와 Turnbull(2001)은 친밀감을 상대방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사회적, 영적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Moss와 Schwebel(1993)은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과 경험하

는 긍정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Schaffer와 Olson(1981)은 친밀감을 상대방에 대한 신뢰, 생각과 느낌과 성적인 관계, 가까움, 우정 등 다면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친밀감의 개념은 행동이나 행위의 한 특성으로서의 친밀감, 개인적 능력이나 성향으로서의 친밀감, 상호작용의 부산물인 다면적 차원의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친밀감(이경희, 1998)으로 세 가지 다른 입장에서 정의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친밀감에 대해 시대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을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사람 간의 상호 공유와 정서적·신체적 밀접함 등 긴밀한 유대형성을 촉진하는 감정으로 정의한다.

2) 부부친밀감

부부의 친밀감은 서로가 평등한 맥락에서 감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Giddens, 배은경, 황정미 역, 1996)이며, 두 사람 간의 가깝고도 밀접한 느낌으로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Moss & Schwebel, 1993)이다. 또한 부부 친밀감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까움, 결속, 일체감과 같은 느낌을 포함하며(Sternberg, 1986),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정서적 지지의 정도를 포함한다(김길현, 하규수, 2012).

친밀감은 사랑하는 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를 열망함, 사랑하는 이와 함께 경험함, 서로 이해함, 사랑하는 이에 대한 존경심,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음, 상대방과 자신의 소유를 공유할 수 있음, 상대에게 정서적 지지를 줌, 친밀한 의사소통, 자신의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함 등의 행동을 포함(최연우, 백용매, 2010; Sternberg & Grajek, 1984)하는 개념이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친밀함에는 즐거움, 생각과 감정의 자기개방, 이해받는다는 느낌, 긍정적 느낌과 애정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것,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흥미와 목표를 공유하기, 개인적 정체감의 성장과 같은 변화들이 공통적인 특성으로 포함되어 있다(Lippert & Prager, 2001; Register & Henley, 1992, Waring et al., 1983).

부부관계의 만족 차원을 설명하는 부부친밀감은 부부 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관계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의미하며 단순한 애정이나 헌신, 성적 욕구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경희, 1998). 친밀감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성적, 사회적, 지적, 오락적, 심미적, 영혼적 친밀감이 있다(옥선화, 정민자, 고선주, 2010).

부부친밀감은 서로를 돌봐주고 존중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부부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박봉순, 김영희, 2010). 부부의 이혼사유로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것이 친밀감의 결여인데(Moss & Schwebel, 1993), 부부 사이에서 친밀감의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결핍되었을 때 두 배우자는 서로 정서적으로 고립되며 이혼하게 된다(박만숙, 연문희, 2002; Sloan & L'Abate, 1985).

중년여성을 연구한 구본진(2008)의 연구에서 친밀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영희와 이윤주(2011)는 결혼안정성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친밀감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요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을 연구한 윤미혜와 신희천(2009)은 부부사이의 수용이 부부의 친밀감을 강화시킬 수 있고, 배우자가 변하기보다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친밀한 부부관계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었다.

부부친밀감의 다차원적 속성(Wynne, 1984)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에서 Schaefer와 Olson(1981)은 부부친밀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하위요인으로 정의적, 사회적, 지적, 성적, 오락적, 정신적, 미적인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으며, Waring(1984)은 애정, 표현성, 응집, 양립성, 성, 갈등해결, 자율성, 정체감으로 구성하여 친밀감을 연구하였다. Bagarozzi(2001)는 감정적, 정서적, 지적, 심미적, 성적, 신체적, 사회적, 오락적, 창조적 친밀감, 갈등을 통한 친밀감, 위기를 통한 친밀감, 육아에 대한 헌신으로 인한 친밀감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결혼지속기간, 직업, 수입정도, 교육수준, 종교 등이 있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애정, 가치관, 성역할 태도, 역할기대 등이 있으며, 상호작용 요인으로는 부부갈등, 의사소통, 원가족과의 관계의 질과 분화수준 등이 포함된다(박평식, 2009).

부부친밀감은 결혼의 동기를 부여하고 결혼의 목표와 목적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족 치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강하고 영원한 친밀감의 공유는 현대인들이 결혼하는 우선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최근 결혼의 가장 큰 비율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친밀

감'과 같은 정서적인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김경자, 2007).

박민자(1992)는 상호존경을 요구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우정과 신뢰를 창출하는 평등한 부부관계에서의 친밀함에 대해 연구하였다. 평등한 부부는 서로 기쁘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서로 나누는 대화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른 가족이나 동성의 친구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보다 배우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부부친밀감 형성요인으로는 상호개방, 개성조화, 상호순응이 있다.

권석만(2018)은 가정생활 주기에 대한 적응과 역할에 대한 적응에 주목하여 부부 관계를 논의하면서 친밀감을 설명하였다. 결혼은 아내와 남편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역할을 실행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적응과제를 잘 풀지 못하면 결혼은 고통스럽고 답답해지고, 부부관계 적응은 성격, 감정표현, 행동습관, 관심사, 가치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수용하고 인식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부부가 서로 적응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 부부 간의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부친밀감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친밀감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인지적, 정서적 및 성적인 필수요소로서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간 애정이나 신뢰, 헌신, 하나됨, 함께 함 등의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부부 두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신체적 밀접함과 헌신의 정도로 정의한다.

3. 근거이론

1) 근거이론 정의

질적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인 근거이론은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에 의해 명료화되어 후속연구들을 통해 질적연구방법론으로 발전했다(Charmaz, 2006). 글라이저와 스트라우스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이론(Grand Theory)에서 현상에 맞춰 가설검증을 진행하는 기존의 연구방식에 의문을

던졌다. 그들은 논문에서 기존 이론의 현상에 맞추지 않고, 현장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 생성을 지향하였다(若林, 2015).

근거이론은 개인의 행위 그리고 사회적 현상이 주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항상 변화하고 개별화되어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에 따른 경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김영천, 2013). 또한 근거이론 접근법은 사례 자체를 상세하게 기술하기 보다는 청취와 관찰 결과 얻을 수 있는 개별 사상에서 공통요소를 추출하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델의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연구방법과 차이가 있다. 근거이론은 그 현상의 구조와 골격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若林, 2015).

스트라우스는 코빈과의 연구(Strauss & Corbin, 1990)를 통해 근거이론 연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근거이론은 정확한 분석적 스토리를 개발해야 하며, 이것은 근거이론의 선택코딩 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현상적 기술보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분석적인 이론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에서 수집된 정보는 연구자의 주관적이지만 분석적인 이론 기술을 통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 수집된 정보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체화해야 하며, 이것은 명제를 발전시키는 축코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근거이론의 이론화 부분이다. 넷째, 범주들 간의 관계를 공고하기 위해 변형되었거나, 관련되었던 조건, 결과 등을 구체화하고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상이한 결과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이론 연구방법의 인식론적 배경인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간은 모든 사물에 대하여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매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인간의 주관성을 인정하면서 행동에 담긴 주관적 의미 파악, 환경 자극의 의미 해석, 언어와 행동분석, 분석 과정을 체계화, 가시화하여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 사회적 구조 즉, 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가 독특한 상황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조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김지연, 2014; 김영천, 2013). 즉, 연구 중인 행동이나 체계의 근거자료가 연구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어 새롭게 생성된 자료로 되며, 이를 서술하고 설명하여 결과적으로 자료에 근거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노지현, 2015; 홍현미라, 권지성 외, 2008; Strauss and Corbin, 1998).

다음은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의 특질을 판단하는 7가지 기준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질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표 1> Strauss & Corbin(1990) 근거이론 특질 판단 기준

근거이론의 특질 판단 기준	
1	최초 표본은 어떻게 선택되었으며, 표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2	연구의 주요 범주들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3	주요 범주의 사건, 부수적 사건, 행동 등은 무엇인가?
4	어떤 범주에 기초하여 자료 수집을 했으며, 범주를 대표할 수 있나?
5	범주들 사이의 개념과 관계와 관련된 가설은 무엇이며, 가설이 형성되고 검증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6	가설이 실재를 지지 않을 때가 있는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재 현상은 가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7	핵심범주는 어떻게, 왜 선택되었는가? 핵심범주의 생성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적 특성은 지속적인 비교이다.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질문을 함으로써 범주를 명확히 한다. 이것은 또한 이론적 표본 추출로 이어진다. 이론적 표본추출이란 자료를 분석하고 질문을 생성하여 다음에 수집한 표본을 선정하는 표본추출 방식으로, 이때 연구자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 민감성이 필요하다. 이론적 표본 추출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더 이상의 범주나 이론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수행한다.

근거이론의 또 다른 핵심적인 방법적 특성은 코딩이다. 코딩은 계속적인 비교분석 과정을 통해 자료를 개념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해서 하위범주, 차원, 속성, 개념을 발견하는 개방코딩, 인과적 상황, 맥락, 중재조건을 밝히는 축코딩, 중심현상을 전체 관점에서 이야기, 도식으로 제시하는 선택코딩의 절차를 따랐다. 원자료를 검

토해서 하위범주를 만들고(개방코딩) 범주를 연결시키고(축코딩-속성, 차원화), 범주들을 연결하는 이야기 구성(선택코딩)을 하였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통하여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고나 사건, 물체, 상호작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개방코딩은 다음 <표 2>의 과정을 거친다.

<표 2> 개방코딩의 과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연구참여자의 전사된 자료를 꼼꼼히 읽은 후 의미있는 진술에 줄을 그으며 개념을 발견	줄 단위 분석방법 사용. 한 구절, 한 단어까지 자세히 검토하여 개념 도출	문장의 문서 자체 분석. 그 속에 포함된 중심생각 확인 및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 코딩 실시

축코딩은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코딩이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 동안에 분해되어 있는 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시작한다. 범주를 축으로 하여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의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켜 범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개방코딩 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들을 하위범주들과의 인과적 조건, 전후관계, 중재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간의 관련성을 분류하고 이들의 중심현상을 축으로 하여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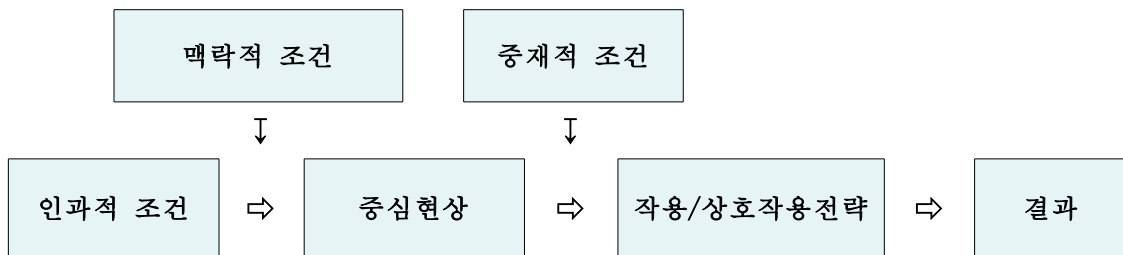
선택코딩은 범주를 통합하고 이론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나타내는 하나의 더 큰 이론적 도식에 범주가 연결되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개념을 이론으로 제시한다. 즉 핵심범주 결정 후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하여 범주 간 이론이 구축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코딩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선택코딩의 과정

단계	1단계 중심범주 발견	2단계 통합을 돕는 기법	3단계 이론의 정교화
내용	연구 중심현상의 개념 명명화	연구 중심현상에 대한 서 술적 이야기 구성 및 제시	연구 중심현상과 관련된 모형 작성

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글래저와 스트라우스가 제시하고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발전시킨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기초하여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친밀성 요인을 인과적 조건으로, 인과적 조건을 계기로 하여 중심현상인 결혼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향들은 맥락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향상 또는 갈등을 유발시켜 활동을 강화하거나 수반되는 상황들을 억제시키는 중재적 조건을 파악하고, 중심현상의 조건 속성으로써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중년기 부부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변화하는 단계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거쳐 결과적으로 부부친밀성 경험을 계기로 부부관계의 태도와 의미, 행동 등의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Strauss & Corbin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1990)

분석절차는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이다. 이는 개념과 범주를 찾아내어 발견된 범주들을 도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고도의 추상화된 이론을 묶어 내는 것으로 분석을 거친 후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으로 나타낸다. 개방코딩(open coding)은 개념을 밝힘으로써 자료안의 속성(properties)과 차원(dimension)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축코딩(axial coding)

은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속성과 차원의 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 범주를 발견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노지현, 2015).

근거 이론에서 이론의 형성과 관계있는 분석의 기록을 메모(memo)라고 하며 개념과 관계된 시각적인 표시하는 것을 도형(disgram)이라 하는데 이는 연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 주제, 가설, 해석, 방향, 질문 등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밀도, 명확성, 정확성이 높아진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관계가 동반자적 부부관계로 변화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중년기 이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되고 결혼생활에 대한 변화와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분석함에 있어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 연구과정에서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의문점이나 생각을 기록하였으며, 전사한 자료를 읽거나 코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여러 생각들과 개념, 이미지들을 연구노트에 기록함으로써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의 중심현상이 무엇인지, 그 요인 및 과정은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선행 연구

1) 중년기 부부친밀감

중년기 부부관계는 양성성의 전환에서 오는 성역할에 융통성이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가족 내 역할과 부부관계에 대한 재평가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변화된다(하태희, 2012). 이 시기에 중년의 부부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을 재평가하여 진솔한 자기성장을 촉진하고 배우자에 대한 수용과 이해로 관계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동숙, 2008). 부부관계의 성장은 서로 간의 일시적이고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는 개념이다(Mace, 1976).

이동숙(2006)은 중년기 남성의 내면적 공허감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 부부관계를 형성한다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영애(2012)는 중년기 부부관계는 역할의 전환과 변화에 있어 적절한 대처와 적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연(2013)과 박성희(2011)은 은퇴한 남성이 부부의 평등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의사결정에 아내의 의견을 높게 반영하며 가부장적인 전통적 고집으로 갈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 자유로운 의사소통, 가사 참여 등 구체적인 노력이 건강한 동반자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부부관계의 질은 중년기 이후 배우자 중심으로 친밀감을 나눌 대상이나 관계가 좁아지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정옥분, 2004). 또한 중년기 이후의 부부관계의 질은 은퇴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우자와의 신뢰성 회복과 친밀감이 요구된다(최은영, 2015; 성영모, 오제은, 박승민, 2013; 김연진, 2012; 박성희, 2011; 신계수, 조성숙, 2011; 김애순, 윤진, 1995). 김남연(2013)은 중년기 부부관계의 건강성으로 친밀한 의사소통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동등한 존재로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였다.

2000년 이후 중장년층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상황은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평등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가부장적인 남성의 인식변화는 적다보니 부부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김경진, 2011). 김의진(2014)에 의하면 황혼이혼의 사유가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생활태도와 폭력, 외도, 의처증, 경제적 갈등, 처가 무시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중년기 부부는 부부 간의 감정표현과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누고 배우자와 이해하고 수용하는 관계성장이 필요하다(박남숙, 2000). 부부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수용, 배려, 존중, 지지의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며(김유정, 2009), 부부관계의 정서적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결과이다(변선아, 2009). 또한 중년기 부부관계는 건강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통한 친밀감과 평등한 가치관을 나누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개선이 요구된다(김경진, 2011; 신계수, 조성숙, 2011).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친밀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친밀감, 배우자에 대한 수용, 배려, 존중 등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밝히고 부부관계의 친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실제 삶 안에서 중년 부부의 친밀감이 어떠한지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중년 부부의 결혼생활동안의 친밀감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실제적인 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2) 부부친밀감 하위요소

부부친밀감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학술적 목적으로 Schaefer & Olson(1981)이 부부친밀감 척도(PAIR)을 개발하였다. 이는 정의적, 지적, 사회적, 오락적, 성적, 정신적, 미적인 일곱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Waring(1984)은 부부친밀감 척도인 웨어링 친밀감 척도(WIQ:Waring Intimacy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었고 하위영역으로 애정, 응집, 표현성, 성, 양립성, 갈등해소, 자율성, 정체감으로 구성되었다. Broucke et al(1995)는 MIQ(Marital Intimacy Questionnaire) 척도를 개발하여 친밀감, 합의 개방성, 애정, 헌신의 요소를 구성하였다.

Hatfield(1984)는 부부친밀감의 하위구성 요소로 정서적 요소, 지적·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나누었고, Sternberg(1986)는 친밀감을 사랑의 정서적 요소로써 상대방과 가깝게 느끼는 감정,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따뜻한 감정이라 하며 친밀감, 열정, 헌신의 세 가지 구성요소의 결합 형태에 따라 사랑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Giddens(1992)는 친밀감을 헌신, 갈등해소, 성적욕구, 자율성, 양립성, 정체감, 상호공유성을 친밀감 개념의 요소로 포함시켰다. Moss & Schwebel(1993)은 헌신, 애정, 성적 욕구, 지적·인지적 욕구를 친밀감의 하위요소로 포함시켰다. 국내에서는 이경희(1995)가 외국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위 영역을 인지적, 정서적, 성적으로 한 부부친밀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부부친밀감은 애정, 표현성, 인지적, 성적 요소 등 다양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러 학자들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성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친밀감이 결혼생활의 총체적인 측면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하는 결혼만족도와 다르게 부부 간의 세부적이고 깊이있는 관계성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평가로 관계적 속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인다. 또한 성공적인 부부관계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는 많지만 그중 부부친밀감은 오래 지속되는 부부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년기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친밀감은 부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한다.

3)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부친밀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르면 학력이 높고, 연애결혼일 경우 친밀감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아내의 친밀감 수준이 더 낮았다(우명순, 임은자, 2010; 김명희, 2006; 박민지, 2006; 양진선, 2004). 특히 중년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성별이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명순, 임은자, 2010; 양진선, 2004). 여기에서 정서적 친밀감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년기 여성들은 배우자와 심리적 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과의 관계를 보면 자아정체감, 자아분화수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강명자, 2007; 양진선, 2004; 김미라, 2001) 부부친밀감이 높다. 부부의 가치관이나 취미, 성격이 일치할수록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송은, 2008; 김미라, 2001; 김복곤, 2001).

부부의사소통은 부부친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우명순, 2008; 박민지, 2006; 김미라, 2001). 부부친밀감은 친밀한 의사소통에 의해 유지되므로 의사소통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잃었던 친밀감도 회복할 수 있다. 부부 간의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부부친밀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으로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명희, 2006; 김미라, 2001).

부부관계의 질은 부부가 친밀한 상호작용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채워지지 않는 친밀감에 대한 기대는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기도 한다(Kirby, Baucom & Peteman, 2005). 가족상담을 받고 있는 부부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부부친밀감이 향상되는 것(Hatfield, 1984)임을 볼 때 중년기 부부친밀감의 증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부부친밀감 선행연구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부가 개인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에 따라 부부친밀감이 다르다는 부부친밀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이경희, 1995)와 부부간의 친밀감은 부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낮은 친밀감은 비정상적인 부적응이나 심리적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Waring, E. & Chelune, G. 1983; 이정은, 2013 재인용) 등이 있다.

한 가정에서 함께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박민지(2006)의 연구에서 부부친밀감은 남편이 아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하위 영역인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에서도 유사하여 남편이 아내에 비해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 등 부부친밀감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친밀감에도 차이가 있었다(양진선, 2004). 부부친밀감과 유사한 개념을 가진 결혼만족도 연구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재, 2007; 이정은, 1999).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가 차이나는 것은 결혼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이 서로 다른 것에서 연유하며 이것은 부부 사이의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박민지 2006).

연령에 따른 부부친밀감은 40대와 50대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김명희, 2006)도 있으나 연령은 부부친밀감이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연령은 곧 세대 차이를 대변하는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김미라, 2001). 흔히 우리나라에서의 부부싸움은 여자가 참아야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일반화되었지만(이경희, 1998) 같은 중년기를 보내고 있더라도 40대 초반의 경우 여자가 참아야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부부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연령은 세대별 가치관을 반영하는 규범적 변수로써 부부친밀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친밀감이 가장 높은 친밀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교육수준이 높았으며(이경희, 1998), 부부는 각자의 학력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을 통해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미숙, 1997). 한편으로는 부부의 일반적 특성인 교육수준의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부부친밀도에 의미있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미라, 2001)도 있었다.

부부친밀감과 유사한 개념인 결혼만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

육 정도는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현덕, 2005). 그러나 아내의 전문직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의 전문직 수행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 부담이 부부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이미숙, 1997). 또한 중년기에 있는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는 부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보다 더 나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40대 아내들과 아내보다 더 나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결혼생활에 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 & Spitze, 1998). 노익상(2002)의 연구에서 남편은 교육수준이 부부만족도와 상관이 없었으나 부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도의 영향력은 중년기 부부에게는 어느 정도인지 계속된 검증이 요구된다.

부부간의 종교가 일치할수록 부부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라, 2001). 부부가 동일한 종교를 가질 때에 만족도가 높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결혼만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동원, 1988). 이는 종교에 따른 부부간 가치관의 일치정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반대로 종교가 서로 상이할 경우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경애, 조병은, 1994). 이는 가치관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관한 연구에서 본인 소득에 따른 부부친밀감은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부부친밀감은 501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만 높은 부부친밀감을 보이며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의 부부친밀감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명희 2006). 대체로 가계소득이 높고(이경희, 1998) 소득수준이 높을 때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박성호, 2001). 그러나 가족의 월평균소득이 부부친밀감에 의미있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라, 2001)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따라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정도의 영향력은 관계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계속된 검증이 필요하다.

결혼 지속기간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지속기간이 결혼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미정, 2001). 결혼

지속기간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을 살펴보면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결혼 초기에 만족도가 제일 높고 첫 아이의 출생 후에 감소를 보이다가 자녀가 청년기에 도달하면서 다시 감소하며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하는 단계에 이르면 결혼만족이 더욱 감소한다고 하였으나(이인수, 1986), 반면에 다른 연구들에서는 결혼 만족이 U자 형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신혼기에 높았던 만족도는 첫 자녀 출생이후 감소하였다가 후반기에 다시 높아진다고 하였다(송말희, 이정우, 1986).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관한 우명순(2008)의 연구에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성별, 부부의사소통 및 가정생활영역에서 양성평등의식, 결혼년 수, 월평균 소득 및 자아정체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 남성은 부부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및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식이었으며, 중년 여성은 교육정도,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식, 결혼년 수 및 부부의사소통 순으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인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 모두 합리적 대처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의 가치관이 일치하고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부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으며, 부부친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희남, 김영희, 2011).

중년기는 신체기능의 약화와 변화, 가족 관계 변화,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 등을 경험하며 적응해야 하는 시기로, 삶의 전성기이자 위기이며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특히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여성으로서의 아내는 더욱 지지적, 자율적, 자기주장적, 독립적이 되어가고, 남성으로서의 남편은 점점 정서적, 수동-의존적, 양육적이 되어감으로 성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부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부부관계에 위기를 맞게 된다(고기숙, 2003). 이러한 이유로 건강하지 않은 부부관계는 중년기에 이르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Robles & Kiecolt-Glaser, 2003),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지금까지 구축해온 사회관계망이 약화되어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서적으로 분노, 불신감, 상실감, 우울 등이 증폭되어 이혼하지 않은 기혼자들에 비해 자살률이 평균 3~4배 높으며(최규련, 2004), 자녀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ummings & Davies, 2002).

하태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중년기 부부관계는 서로 양성성의 전환에서 오는 성역할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여서 부부 간의 질에 대

한 변화가 부부관계의 재평가와 가정 내 역할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옮겨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동숙(2008)은 중년기 부부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여 진솔한 자아성장을 촉진하고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부부관계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중년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 불안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은 자녀 애착 회피와 노화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 애착 회피는 노화 불안 과정에서 부분적인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재연, 김지현, 2014). 부부의 원가족 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자신의 원가족 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수진, 이인수, 2015).

부부친밀감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부친밀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연구와 부부 간의 친밀감이 결혼만족이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부친밀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부부친밀감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저자	연도	비고
주제	부부간 친밀감척도 개발			
연구 결과	부부 간 친밀감 개념에 대한 요소 규명 및 척도 구성	이경희	1995	학술지
주제	갈등, 친밀감, 부부관계유형			
연구 결과	부부관계유형별 특성에 따라 친밀감 추구형, 친밀형, 포기형, 갈등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 긍정적 상호작용 및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순서임	이경희	1998	박사논문
주제	부모의 부부갈등, 원가족 분화, 부부친밀감, 결혼안정성			
연구 결과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 개인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며, 부부관계에서도 기능하게 되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안정성과 불안정성으로 나타남	이영희, 이윤주	2011	학술지
주제	원가족 분화 경험, 자아분화, 부부갈등대처행동, 부부친밀감			
연구 결과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을 매개로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인지적, 정서적, 성적 부부친밀감에 따라 밝힘	유희남, 김영희	2011	학술지
주제	원가족 경험, 부부친밀감, 부모-자녀관계			
연구 결과	원가족 경험과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자녀에게 미래의 원가족 경험이 되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족관계의 중요성 밝힘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학술지
주제	마음챙김, 일치성, 부부친밀감			
연구 결과	마음챙김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음	김승욱, 정혜정	2013	학술지
주제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 노화불안			
연구 결과	부부친밀감은 자녀애착회피와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애착회피는 부부친밀감이 노화불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함	임재연, 김지현	2014	학술지
주제	원가족 건강성, 부부친밀감			
연구 결과	각자 자신이 지각하는 원가족 건강성이 자신의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나 상대방의 원가족 건강성은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	박수진, 이인수	2015	학술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부친밀감이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부부들의 친밀감이 부부의 결혼생활동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연구하여 현 시대의 중년기 부부를 이해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로 나아가 결혼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연구되어온 중년기 부부친밀감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나 결혼만족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아닌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연구방법 중 결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부부친밀감의 변화과정을 연구하고자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하였다.

1. 근거이론적 접근

근거이론은 다른 질적 연구들과 다르게 목적성을 지닌 연구방법이다. 근거이론 연구의 목적은 기술수준을 넘어 과정 혹은 행동에 대한 ‘통일된 이론적 설명’, 즉 이론의 생성 또는 발견이다(Strauss & Corbin, 1998).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Glaser와 Strauss는 초기 귀납적인 연구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창시한 이후 서로 의견이 달라져 연구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근거이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근거이론은 Strauss & Corbin의 방법론과 Glaser의 방법론으로 분류된다. 근거이론에서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 또는 집단의 신념, 행동, 태도 등의 관찰을 통해 특정한 현상을 일반화된 이론으로 설명하는 귀납적인 연구를 실시한다(Stern, 1980). 또한 이론을 설정하지 않고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을 생성하며, 경험적 자료에서 도출된 이론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개념의 조합이나 추론을 통해 생성되는 이론보다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다(안상진, 2016).

근거이론의 특성은 주로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이론적 민감성, 이론적 표본추출, 체계적인 코딩 과정,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거친다. 이론적 표본추출은 자료수집과 분석이 완전히 분리되는 양적 분석 방법과 자료를 다르게 분석하고 그 내용에 맞춰 다음 대상을 조정해 나가는 표집과정이다(박성우, 2011).

본 연구에서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이 표집개념이 되었으며 친밀감의 각 범주와

속성에 있어서 포화할 때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지속적 비교방법을 위해 한 참여자에서 나온 개념이 다른 참여자에게도 반복하여 나오는지, 개념, 범주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범주화하였다. 따라서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학술적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절차는 과정 중심의 연구 방법 구조로 구성된다. 따라서 근거이론은 원인과 결과의 단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것의 부사물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변화, 전략 등을 고려한다(김영천, 2013). 이에 중년 부부의 친밀감을 살펴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정 중심의 접근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이론적 민감성, 지속적인 비교방법, 자료수집의 과정은 현상의 실제적 본질 및 그 현상의 과정과 내용 등을 범주화하여 분류하고 그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기에 유용하므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연구과정

1)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연구의 타당성과 깊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절차이고 적절성과 충분성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적절성은 연구에 정보를 적합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으며, 연구목적에 설명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충분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문지은, 2015).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다른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목적에 적합한가를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게 확인받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년기 시작 시점인 40세에서 노년기 시작 이전인 64세의 기혼자를 중심으로 하며 연구자료의 충분성을 위해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수집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범주들이 포화가 될 때까

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총 17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참여자들의 배경은 대부분 청소년기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업주부도 있다.

연구절차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스트라우스와 코빈(A. Strauss & J. Corbin, 1990)의 근거이론에 의거한 합의적 질적 연구(CQR4) 방법과, 엘리어트(R. Elliot, 1989)의 집중적 과정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근거이론과 현상학적 이론을 기반에 둔 종합적 과정분석으로 개인의 경험 구성과 관련하여 연구자 다수가 합의하여 변수 및 관련 영역을 도출하여 선행연구의 질적 연구방법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연구결과의 반복성 및 엄격성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연구방법 중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참가자가 면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04). 연구참가자가 살아오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고 현재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자 할 때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다(오태균, 2004).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영역을 설정하고, 면접참가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면담에 이르게 할 수 있다(S. B. Merriam, 2009).

본 연구는 연구참가자들이 개방형 질문형식으로 작성된 질문지에 따라 자유롭게 편안한 느낌으로 면담에 참여하게 하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수행된다.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에 거주하는 40~64세의 중년 기혼자로 여성 12명, 남성 5명으로 구성하였다. 결혼기간은 18년 이상에서 32년까지이며 전체 평균 23년 8개월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은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17세~31세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명, 전문대학 졸업 1명, 대학교 졸업 5명, 대학원 졸업 10명으로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연애혼 14명, 중매혼 2명, 절충혼 1명으로 나타났으며 첫째자녀 출산 시기는 1~2년 이내 10명, 2~3년 이내 6명, 3~5년 이내 1명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아들 2명이 5명, 아들 3명이 1명, 딸 2명이 4명, 아들 1

명·딸 1명이 5명, 아들 3명·딸 1명이 2명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불교 3명, 천주교 3명, 개신교 6명, 무교 4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결혼 기간	결혼 형태	자녀	첫째 자녀 출산시기	종교	배우자와 침실사용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참여자1	여	50	대졸	25년	연애혼	아들2	1~2년이내	불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참여자2	여	58	대학원 (석사)	32년	중매혼	아들3	1~2년이내	무교	각방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3	여	46	대학원 (석사)	22년	연애혼	딸2	1~2년이내	불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4	여	46	대학원 (석사)	19년	연애혼	아들1 딸1	1~2년이내	불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5	남	55	대졸	25년	연애혼	아들1 딸1	2~3년이내	천주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6	여	58	대학원 (석사)	25년	중매혼	아들2	2~3년이내	기타	각방	자신+배우자
참여자7	여	56	대졸	32년	연애혼	딸2	3~5년이내	천주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참여자8	여	48	대학원 (석사)	25년	연애혼	딸1 아들1	2~3년이내	개신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모
참여자9	남	49	고졸	25년	연애혼	딸1 아들1	2~3년이내	개신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장모
참여자10	여	49	대학원 (석사)	26년	연애혼	아들2	1~2년이내	개신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11	남	53	전문대졸	26년	연애혼	아들2	1~2년이내	개신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12	여	43	대졸	18년	연애혼	딸2	1~2년이내	무교	기타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13	남	48	대학원 (석사)	18년	연애혼	딸2	1~2년이내	천주교	기타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14	여	48	대학원 (석사)	21년	절충혼	아들2	1~2년이내	무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15	남	47	대졸	24년	연애혼	아들3 딸1	2~3년이내	개신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모
참여자16	여	47	대학원 (석사)	24년	연애혼	아들3 딸1	2~3년이내	개신교	같은방	자신+배우자 +자녀
참여자17	여	47	대학원 (석사)	18년	연애혼	아들1 딸1	1~2년이내	무교	각방	자신+배우자 +자녀

3) 면담 질문지 작성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단계로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면담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부부친밀감의 개념을 고찰하고 부부 친밀감 연구인 조원덕(2013), 김선화(2012)의 연구 논문을 살핀 뒤 개방적 질문 및 경험의 현상과 의미 등으로 질문지를 구성, 전체 목록을 형성(2020. 1.)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의 평가(2020. 1.)를 통해 1차 수정을 하여 지도교수에게 검토(2020. 9.)를 받아 2차 수정(2021. 3.)을 하였다. 그 후 예비연구(2021. 3.)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은 개방적 질문으로 실시하였다. 작성된 면담 질문지에 따라 처음에는 개방적인 질문을 하고, 이후 각 참여자에 맞게 참여자가 말하지 않는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추가 질문들을 하며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감수를 다시 실시하여 3차 수정(2021. 3.) 후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드러나는 질문목록들을 추가하여 4차 수정(2021. 3.)분을 질문목록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 후 수정된 질문 목록으로 심층 인터뷰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들과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면담 질문지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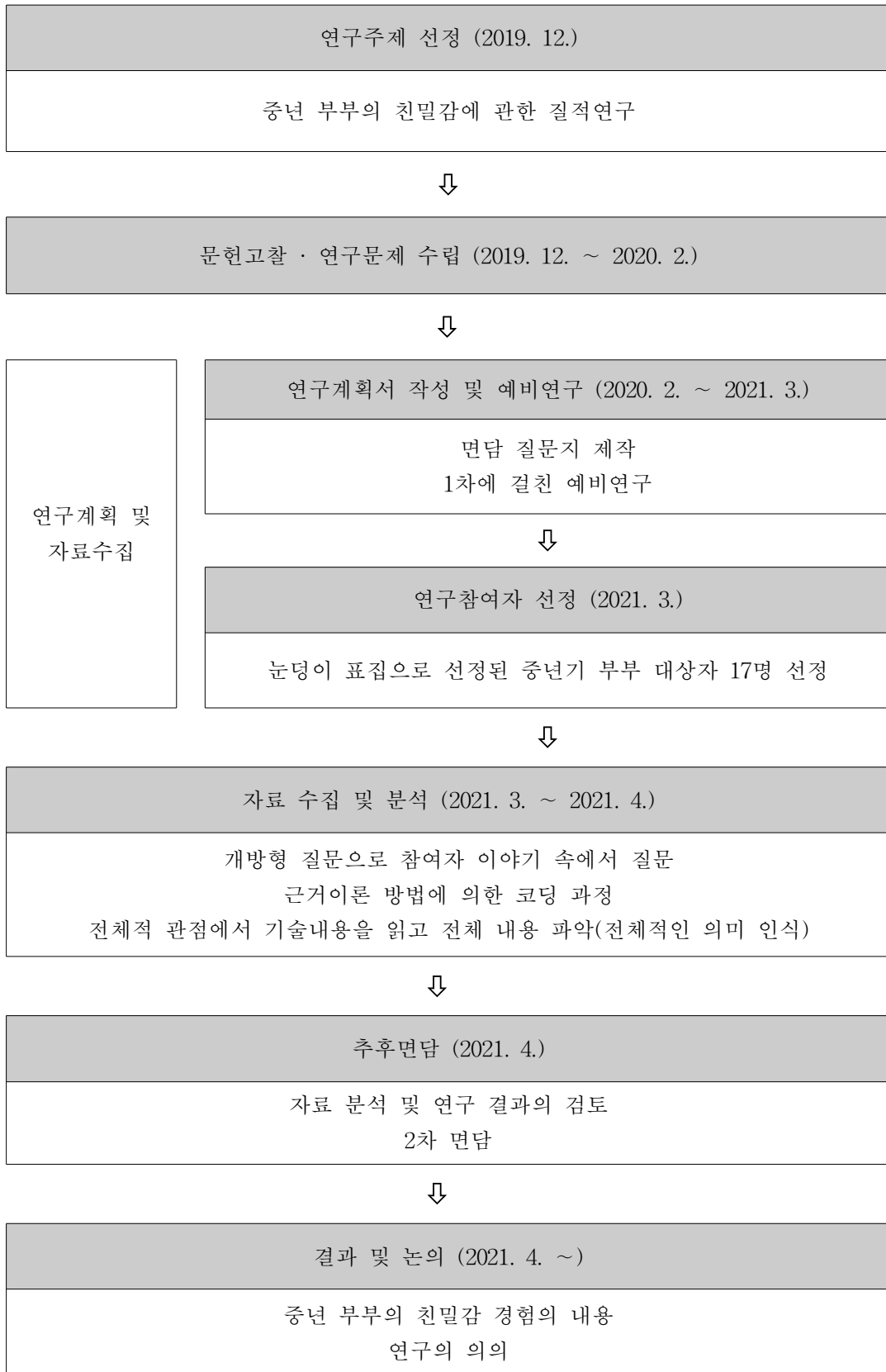
<표 6> 면담 질문지

구분	개방형 질문
1	당신은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나요? 배우자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2	당신은 배우자의 어떤 매력이 좋아서 결혼했나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3	당신은 아내(남편)로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4	부부관계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당신이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5	부부관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결혼기간 중 후회되거나 미련으로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6	배우자와 가장 많이 주고 받는 감정(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언제 기쁘거나 즐거운지, 슬프거나 화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7	당신은 배우자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나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8	당신이 배우자에 대해 가장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9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0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함께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11	배우자와 부부 간 관계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12	당신은 배우자와 성적 친밀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13	당신이 배우자와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4	당신이 부부친밀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5	당신은 배우자가 어떻게 해줄 때 친밀감을 느끼는지 말씀해 주세요.
16	당신이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7	당신은 부부관계의 행복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가요?
18	중년기의 부부친밀감에 대해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3. 연구절차

질적 연구의 첫 번째 작업인 전사는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노트, 녹취물, 다양한 기록물, 현지자료)를 체계적으로 새롭게 받아 적는 것을 뜻한다. 전사지는 연구과정 중에 연구자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생각, 느낌, 방법 등을 포함하게 된다. 전사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인터뷰 원자료에서 코드와 범주를 생성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1차 코딩(open coding)을 실행하는데 이 과정은 풍부한 기술과 지역적인 맥락으로부터 사회적 과정과 연대기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를 초월한 개념적 관계를 만들거나 범주를 생성하는데 유용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Miles & Huberman, 1994).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관계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문헌고찰 후 연구문제를 수립, 예비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추후 면담, 결과 및 논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그 진행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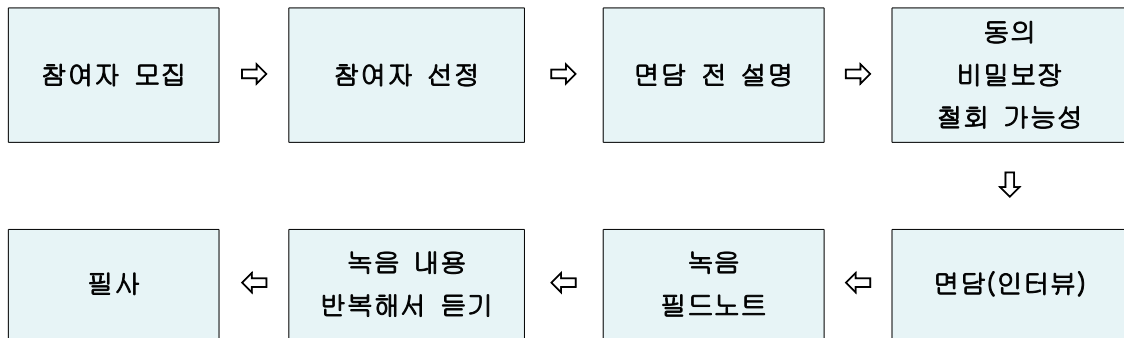
4. 자료수집

1) 자료 수집과 분석

심층면접은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으로써 대상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심층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와의 공감적 동일시를 위해서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하고,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냉철한 머리를 가져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내면적 세계를 공감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김영천(2016)은 제안했다. 또한 심층면접은 사회현상과 인간의 행위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삶과 경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수집방법으로 자기성찰로 인한 내적 성장과 심리치유의 효과를 가진다(김영천, 2016).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반구조화된 면담이란 심층면접 전 면접 가이드를 만들어 면담 중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일부 배제한 면담 형식이지만 준비된 면담가이드로 진행하면서도 맥락에 필요한 개방형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연구참여자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유도하고, 연구참여자의 반응이나 심층적인 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4월이며 면담시간은 1회당 90분~120분 내외로 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에게 면담 전 연구의 주제, 목적, 인터뷰 내용, 녹음에,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참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비밀보장 및 익명성,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폐기 등 연구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이에 동의한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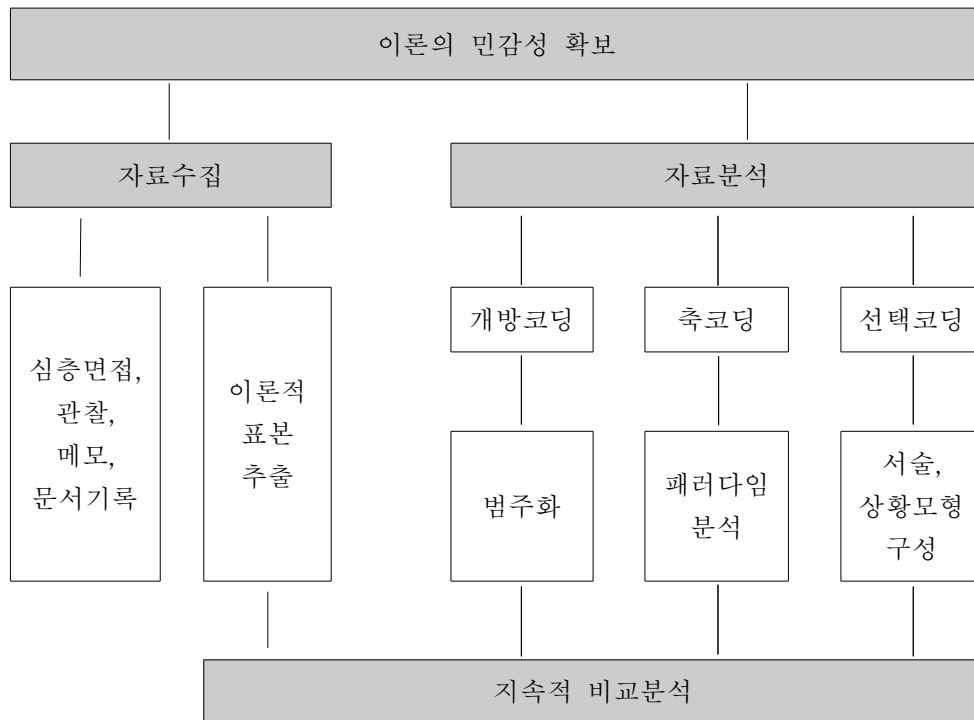
연구질문과 관련해 초기 면담시 연구참여자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연구자와의 rapport 형성을 위한 일상적 질문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연구목적과 관련한 질문으로 초점화시켜 나갔다. 또한 면담시 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 등 비언어적 반응을 관찰하여 필드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내용분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취하였으며, 녹취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를 필사하였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과정은 다음 [그림 3]과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그림 3] 연구절차

구분	주요내용
자료수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담(녹취) • 현장메모 • 녹취내용의 전사 자료
개방코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해서 자료 읽기 • 의미별로 자료의 분절 • 분절자료에서 속성과 차원을 추출하여 개념설정 및 명명 • 개념을 범주화하고 범주 명명
축코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러다임 모형을 사용하여 범주를 현상별로 분류 • 현상별로 범주 관련 도표 작성, 현상의 중심이 되는 범주를 한 개 선택하여 개념의 명칭으로 설정 • 개념을 사용하여 이야기 윤곽 작성
선택코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관련 도표 작성 • 설정된 핵심범주를 이야기 윤곽 재확인 작업 • 추상도가 높은 현상을 이야기 윤곽으로 제시

[그림 4] 자료분석 과정



[그림 5] 근거이론의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최정호, 2014)

2) NVivo R1 활용

본 연구는 개방형 코딩방법을 사용하면서 QSR International에서 개발한 질적 자료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 NVivo R1을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적 텍스트 자료이고, 분석할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에 전통적인 카드 분류법으로는 분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를 도출하고 반복적 개념의 유형과 사고를 발견하게 된다. 이후 발견된 유형과 사고를 요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으로 특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NVivo R1은 자료의 관리와 탐색을 용이하게 하고 코딩과 분석 및 자료의 변화 내용분석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NVivo R1에서 코딩의 단위는 단어, 구, 절 및 연구자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NVivo R1에서 자료 분석 과정은 수많은 하위 범주 위에 상위 범주로 그 숫자가 작아져 가는 것이다(박종원, 2020).

수집된 자료들은 한글(HWP)파일로 저장되었는데 NVivo R1이 이를 불러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한글(hwp) 파일은 워드(docx) 파일로 전환하여 NVivo R1에 저장 후, 세부내용을 읽으며 코딩하였다. 자료를 읽으며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문장, 단락들을 하나의 주제로 요약하여 코드(code)를 구성하였으며 생성된 코드를 통하여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중년기 부부친밀감의 요인과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채혜성 외 2명(2017)은 국가기관의 공모전에 출품된 6차 산업화 농특산품 41점을 대상으로 전문가 5인이 기술한 평가의견과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1을 활용하여 6차 산업화 농특산품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영림과 이권철(2020)은 5개년 동안 보도된 실종 관련 기사를 NVivo 12로 분석하여 외부 일반 사회의 시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실종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 또는 비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종 초기대응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수영과 임순연(2014)은 노인 유사체험 후 노인에 관한 생각이나 태도 변화를 알아보려고 NVivo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주관적인 응답을 토대로 단어 나무와 단어 빈도를 파악하였다. 이처럼 NVivo 프로그램은 많은 질적 연구자들이 인터뷰, 개방형 설문조사 응답, 언론 기사, 소셜 미디어 및 웹 콘텐츠, 서면 자료 등과 같은 비정형 또는 정성적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5.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는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관성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측정된다(송경옥, 2017).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1)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일관성(consistency), 적용성(applicability), 중립성(neutrality) 4가지 기준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적용하였다.

첫 번째, 사실적 가치는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상을 얼마나 충실하고 생생하게 서술하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유순희, 2017). 연구자는 사실적 자료를 얻기 위해 참여자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참여자가 체험하고 느낀 사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질적 연구자이며 가족 상담사인 1명과 지속적인 의견을 나누고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보다 깊이 개방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판단중지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일관성은 연구가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되었을 때 그 연구결과가 동일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뢰도와 유사한 의미이다. 질적연구는 경험의 다양성이 추구되므로 본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고 연구자의 시각, 자료, 상황에 따라 전혀 모순되지 않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 일관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연구진행과정, 근거이론 모형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정기적인 지도를 받고, 가족상담사 1인과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2명의 조언을 받으면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계속하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 번째, 적용성은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주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 것으로 외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본인의 경험세계에서 의미가 있고 적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참여자 선정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부부친밀감의 개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이론적 비교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질적 연구 전문가인 지도교수로부터 적용가능성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네 번째, 중립성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서 모든 편견이 배제되는 것으로, 특정시각과 의도된 결과를 위해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Lincoln & Guba(1981)는 질적 연구에서 중립성은 사실적 가치와 일관성, 적용성이 충족될시 획득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개방적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여 참여자들이 경험한 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년기 부부에 대한 개인사적 경험이 연구결과에 편향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감찰과 동시에 본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생각하기, 연구절차 따르기의 과정을 통해 중립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타당도는 전체적인 맥락의 파악을 통한 중간 수정 및 피드백 작업이 진행되고 기존에 검증된 이론을 통한 분석으로 높아지게 된다(최성호 외, 2016). 연구 결과가 연구자가 설명하고자 하는가에 관하여 검증된 선행연구와 전문가들의 피드백

작업으로 수정을 거쳐 진행하여 타당도를 높였다.

6.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진술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생활이 자세히 드러나기 때문에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행 전 동의를 구하는 부분과 분석 및 기술하는 과정에 있어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부분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본질적 목적과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충분히 전달하고 개인정보와 면담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를 보장한다고 알리며 신뢰를 형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편한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 후 심층면담경험이 풍부한 질적 연구자의 조언을 받아 면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면담 내용이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연구자에 대한 소개 후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권리와 계속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참여자의 허락 하에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한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또한, 녹음 내용을 옮겨 쓸 때에는 익명처리를 할 것이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의 보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연구가 끝나면 녹음 내용은 지우고 기록 문서는 폐기처분 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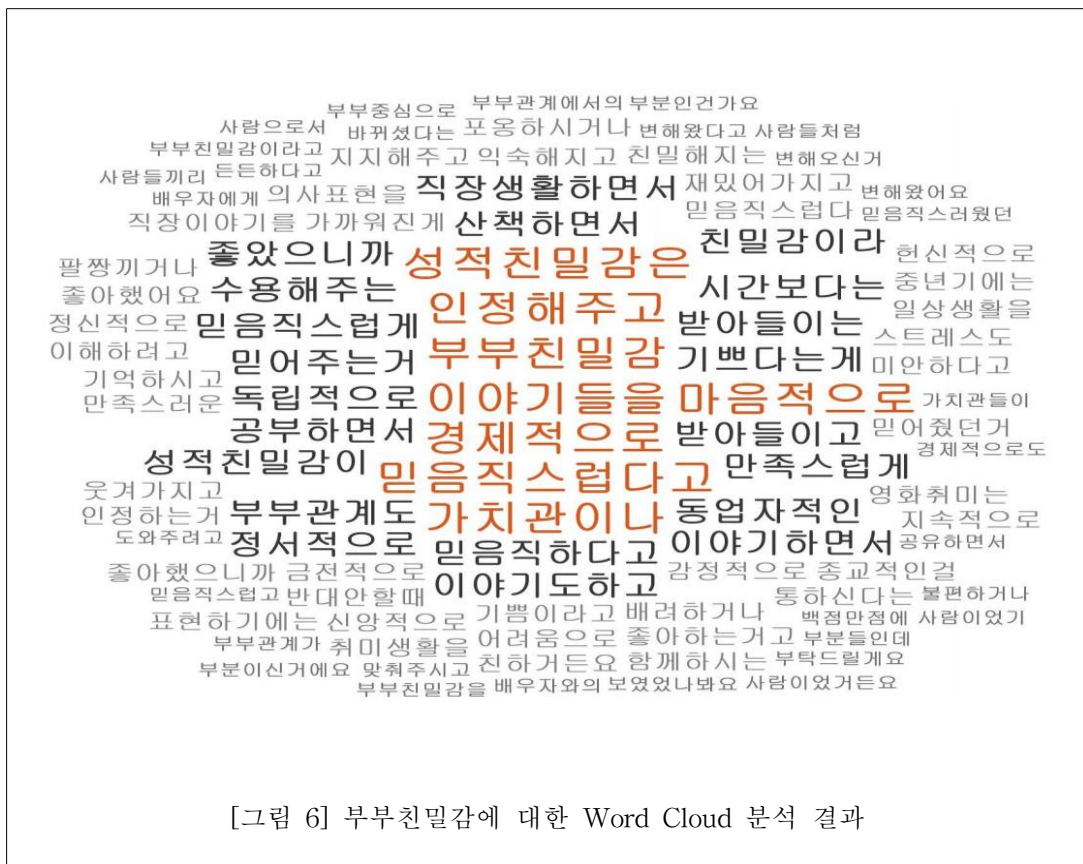
연구자는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연구방법에 대한 교재를 읽으며 공부하였으며,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의 조언을 얻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알려준 대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녹음된 면접 내용을 전사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특정한 기호로 표시하였다. 녹취된 파일 이름도 연구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녹취된 심층 면담 원자료를 전사한 후 중년 부부로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의미 단위를 발견하였다. 이에 친밀감 요인에 대해서는 기본적 개념화와 이론적 개념화 단계를 실시하였으며,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개념을 도출하고 분석 처리하여 개방코딩하였다.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NVivo R1 프로그램 결과 분석대상 단어에 대한 연관 단어를 보여주는 Word Cloud와 연결어를 보여주는 Word Tree로 확인할 수 있었다. Word Cloud 분석을 통해 도출한 부부친밀감 관련 연관단어는 ‘부부친밀감’을 포함하여 ‘의사소통과 지지’, ‘정서적 교류’, ‘신퇴’, ‘가치관’, ‘성적 친밀감’, ‘경제력’, ‘자율성’ 등이 있다.



[그림 6] 부부친밀감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Word Tree 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결가능한 다양한 연결어가 도출되었다. 친밀에 대한 연결어는 ‘감정을 나누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헌신과 배려’, ‘돌봐주고 할 때~’,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의 감정을 읽는 것~’, ‘수용해주는 사람~’ 등이 도출되었다.



[그림 7] 부부친밀감에 대한 Word Tree 분석 결과

1. 개념 범주화 및 패러다임 요소

1)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개념과 범주

본 연구는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근거로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해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의 자료 분석과정을 거쳐 <표 7>, <표 8>과 같이 도출하였다. NVivo R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근거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총 181개의 개념어가 도출되었고, 개념 중에서 유사하거나 공통된 항목을 묶어 40개의 범주로 도출하였으며, 하위범주 중에서 공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묶어서 1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7> NVivo R1 분석 결과

하위범주 (N=응답자수)	상위범주(N=응답자수)	패러다임
매력을 느껴 가까워짐 (N=17)	내적 동기 (N=17)	인과적 조건
결혼을 결정함 (N=17)	결혼을 선택 (N=17)	
나에게 잘해줌 (N=12)	배려와 헌신 (N=17)	맥락적 조건
서로 의지함 (N=11)		
과감한 포기 (N=7)		
인생관 (N=7)	공통된 가치관 (N=11)	
공통된 가치성향 (N=5)		
신앙관 (N=5)		
사회적 가치 (N=3)		
경제적 안정 (N=8)	경제력 (N=8)	
수용받는 대화 (N=12)	의사소통과 지지 (N=17)	중심현상
일상적인 대화 (N=11)		
자기를 개방 (N=8)		
배우자에 대한 믿음 (N=14)	신뢰 (N=17)	
긍정적 사고 (N=7)		
내편이 되어주는 남편 (N=5)		
신체적 건강함 (N=1)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N=11)	정서적 교류 (N=17)	
긍정적 정서 (N=8)		
존재 자체로서의 친밀함 (N=7)		

위로받는 마음 (N=6)		
함께 아파함 (N=5)		
정서적으로 깊어짐 (N=5)		
자녀에 대한 마음 (N=3)		
만족되는 성 (N=10)	성생활 (N=13)	중재적 조건
스킨십 (N=9)		
서로를 사랑함 (N=7)	애정 (N=7)	
지속되는 이성애 (N=3)		
같은 취미를 공유함 (N=11)	함께하고 싶어함 (N=17)	작용/상호작용 전략
함께하는 시간 (N=15)		
서로를 인정함 (N=10)	서로를 인정함 (N=13)	
서로를 알아감 (N=7)		
자유로워짐 (N=8)	자유성 (N=8)	
갈등해소 (N=9)		결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 (N=7)	이해하는 부부 (N=13)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N=4)		
행복을 위한 노력 (N=6)		
지금처럼 함께 (N=6)	노력하는 부부 (N=11)	
나를 위해주는 배우자 (N=3)		
서로를 위로함 (N=5)	의지하는 부부 (N=5)	

<표 8> 개방코딩 패러다임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재밌고 웃기고 위트있음	매력을 느껴 가까워짐	내적 동기	인과적 조건
아는 사이로 계속 만나면서 친해짐			
나에게 잘해주어서			
남편집의 분위기가 좋았음			
타인에 대한 마음씀씀이 괜찮았음			
나를 포용해주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라 괜찮은 느낌을 받음			
열정적임			
지속적으로 만남			
성실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외모였음			
비전,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친해짐			
따뜻하게 잘 챙겨줬음			
나에게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많이 해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느꼈음			
공동관심사가 많아서 즐겁고 유쾌했음			
점잖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에 들었음			

<p>잔잔하게 자기 느낌을 말해서 좋았음</p> <p>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감을 느낌</p> <p>첫인상이 좋고 끌리는 인상이었음</p> <p>가까워지려고 자꾸 말을 걸고 자주 만남</p> <p>세심하게 잘해줬고 선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있었음</p> <p>순수하고 무난한 사고 등이 편안했음</p>			
<p>남편집에 대해 알고 있어서 집안에서 좋아했음</p> <p>자연스럽게 인연으로 느껴졌음</p> <p>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면의 예쁜 모습이 있었음</p> <p>만나는 것을 부모님이 보게 되었음</p> <p>성실해서 나를 힘들게는 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하였음</p> <p>내가 생각했던 조건, 기준들에 맞았음</p> <p>가정의 어려움, 부모님에 대한 어려움들을 알게 되었음</p> <p>사람의 됬됨이가 괜찮았음</p> <p>사람 자체가 너무 바른 사람이고 주변에 평가도 좋고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음</p> <p>외모에 반해서</p> <p>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음</p> <p>신뢰할 수 있었음</p> <p>나의 단점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음</p> <p>온순한 성품이 매력이었음</p> <p>믿음이 같았음</p>	결혼을 결정함	결혼을 선택	
<p>생각이 그나마 가치가 비슷했음</p> <p>가치관하고 성향이 좀 비슷했음</p> <p>바라보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일맥상통함</p> <p>비슷하고 상반되지 않은 가치관</p> <p>사람들을 대하는 마음</p> <p>주위에 나눠주고 살아감</p> <p>자녀양육관이 같음</p> <p>정치적 가치가 같음</p> <p>남을 도와주고 불쌍하게 여김</p> <p>동물에 대한 연민</p> <p>인생관도 조금 비슷함</p> <p>인생을 즐기자</p> <p>행복하게 살고 싶음</p> <p>신앙적인 부분이 일치함</p>	<p>공통된 가치성향</p> <p>사회적 가치</p> <p>인생관</p> <p>신앙관</p>	공통된 가치관	맥락적 조건
<p>직장에 계속 다녀주는게 고마움, 큰 힘이 됨</p> <p>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줌</p> <p>경제적인 안정을 더 찾고자 함</p> <p>맞벌이로 생활에 경제적으로 보탬을 줌</p> <p>남편 때문에 참 편하게 살았음</p> <p>아무진 면이 있어 고생을 안하게 해줬음</p> <p>성장을 위해 애를 많이 썼음</p> <p>나를 위해주는 모습</p> <p>나를 위해 배려를 해주는구나 느낌</p> <p>나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함</p>	<p>경제적 안정</p> <p>나에게 잘해줌</p>	<p>경제력</p> <p>배려와 헌신</p>	

나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줌			
특권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적으로 다 해줌			
몸이 아플 때 돌봐주고 하는 것들	서로 의지함	의사소통 과 지지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			
서로를 챙겨주고 챙김을 받고 하는 것들			
사소한 것들을 다해주고 서로를 챙김			
서로에게 다 맞춰줌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는 과감히 포기함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줌	자기를 개방	의사소통 과 지지	
얘기를 하며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찾았음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들어줌			
자기에 대해 나에게 얘기함	수용받는 대화		
말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말함			
공통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물꼬를 알게됨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주제나 흥미같은 것들이 비슷함			
스스럼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음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나눔			
가장 약한 점을 판단과 비판없이 잘 들어줌	일상적인 대화	의사소통 과 지지	
사소한 대화를 많이함			
삶에 관한 얘기 등 상의를 하고 더 부드러워짐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의견을 얘기해 줌			
직장문제, 진로에 관한 얘기를 함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눔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	내편이 되어주는 남편	중심 현상	
남편이 있어 듬직함			
내 편이 있어 버팀목이라는 느낌			
남편을 믿음			
남편의 얘기가 다 맞아서 절대적인 신뢰가 생김			
내편이 아닌 것처럼 말해도 결국 내편이 되어주어 편안함			
지지해 주고 편안하게 받아주고 믿어주니 신뢰가 높아짐	배우자에 대한 믿음	신뢰	
신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함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움			
사람이 변함이 없어서 신뢰로움			
가장 가까운 친구인거 같음			
거짓말을 안하고 솔직함			
그냥 서로를 믿음	신체적 건강함	정서적 교류	
힘이 있어서 든든했음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게 믿음직스러움	긍정적 사고		
좋은 것을 보면 남편이 생각남	긍정적 정서		
평온함			
서로 감정을 주고받음	위로받는 마음		
남편에게 속상한 것을 얘기해서 풀어냄			
공감, 지지받는다고 느껴짐			

온전하게 나를 바라봐줌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정서 회복					
표현을 하지 않지만 존경할 사람임					
남편에게 고마움					
부담을 털어버리니 편안함					
서로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음					
서로가 불쌍하게 생각함					
아플 때 걱정하고 있다고 느낌	함께 아파함				
자녀들의 일로 기쁘고 슬픔	자녀에 대한 마음				
정서적인 부분이 더 깊어졌음	정서적으로 깊어짐				
존재 자체가 친밀하다고 생각함	존재 자체로서의 친밀함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변했음					
신체적 접촉을 좋아함	스킨십	성생활	중재적 조건		
기대있으면 편하고 만지면 좋음					
매일 등 쓸어주고 마사지함					
자주 안아줌					
성에 대해 얘기하고 부부생활이 좋아짐	만족되는 성				
질적인 면에서 만족되는 성					
성관계가 굉장히 활발함					
같이 기쁘기 위해 노력하는 성					
나를 너무 좋아해줌	서로를 사랑함			애정	
남편이 그냥 좋은 사람이었음					
남편을 좋아함					
부부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설렘은 아니지만 익어가는 달달함					
오랜 시간 살았지만 이성으로 느껴짐	지속되는 이성애				
같이 놀러다니고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함께 있을 때	같은 취미를 공유함	함께하고 싶어함	작용/ 상호작용 전략		
같이 산책함					
함께 있어주고 같이 가주는 것					
요리를 같이함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함					
같이 여행다님	함께하는 시간				
아내 옆에 있으면 친밀하다고 느껴짐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	서로를 알아감	서로를 인정함			
남편의 편함과 불편함, 힘들어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냄					
남편이 말했을 때 감정 등으로 잘 통함					
사고에 대한 이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	서로를 인정함				
가정경제를 주도해 나가는데 남편이 인정해줌					
밖에서 내 입장을 긍정적으로 세워줌					
부족한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줌					
서로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줌					

남편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인정해줌			
서로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었음			
내가 한 것에 대해 칭찬해줌			
잘하는 부분을 그냥 하도록 해주고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잘하라고 한 적이 없었음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함			
혼자 서니까 동등하게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듦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게 중심을 세움	자유로워짐	자율성	
나다운 모습으로 충실하게 나아가며 둘이 함께 함			
아무 문제없이 편안함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	나를 위해주는 배우자	노력하는 부부	
변함없이 서로를 위함			
존재 자체로 감사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는 배우자	행복을 위한 노력		
행복을 위한 노력	지금처럼 함께		
신뢰하며 지금처럼 살기	갈등해소		
사람이 변했음			
나의 말을 잘 들어줌			
나의 감정들을 받아주었음	배우자에 대한 이해	이해하는 부부	결과
직장에서의 힘들음을 견뎌내서 대단하다 생각됨			
공부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해가 됨			
내가 바뀌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함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내 생각이 부드러워지면서 정리가 됨			
남편 행동의 변화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함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함			
기대를 내려놓음			
남편에게 맞춰줌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남편에 대한 연민, 안쓰러움			
상대의 약해진 모습이 측은함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과 고마움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남편이 측은해 보임			
남편이 안되고 외롭겠다고 생각됨			
이 사람이 많이 약해지네 측은하기도 하고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늘었네라는 찝찝함과 아쉬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점을 얘기함			
서로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함	서로를 위로함	의지하는 부부	
부부가 얘기하니 서로 위로가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			
부부가 얘기하니 서로 위로가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			

2) 연구참여자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해석적 기술

개방코딩의 범주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부부친밀감에 대한 경험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16개 상위범주의 내용을 해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내적 동기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시작으로 지속적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배우자에게 매력을 느껴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매력을 느껴 가까워짐’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내적 동기’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매력을 느껴 가까워짐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재밌고 웃기고 위트있음	매력을 느껴 가까워짐	내적 동기
아는 사이로 계속 만나면서 친해짐		
나에게 잘해주어서		
남편집의 분위기가 좋았음		
타인에 대한 마음씀씀이 괜찮았음		
나를 포용해주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라 괜찮은 느낌을 받음		
열정적임		
지속적으로 만남		
성실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외모였음		
비전,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친해짐		
따뜻하게 잘 챙겨줬음		
나에게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많이 해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느꼈음		
공동관심사가 많아서 즐겁고 유쾌했음		
점잖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에 들었음		
잔잔하게 자기 느낌을 말해서 좋았음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감을 느낌		
첫인상이 좋고 끌리는 인상이었음		
가까워지려고 자꾸 말을 걸고 자주 만남		
세심하게 잘해줬고 선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있었음		
순수하고 무난한 사고 등이 편안했음		

점잖았고 생각이 마음에 들었으며, 잔잔하게 자기 느낌을 말하는게 좋았어요.
[참여자3]

야구동호회를 찾다가 알게 된 팀에서 만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었고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어 사귀게 되었어요. 야구를 같이 보러 다니고 같이 게임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되었고 많이 친하게 됐어요. [참여자4]

첫 인상이 너무 예뻐고 끌리는 인상이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자주 보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도 있지만 제가 옆에 가서 자주 만나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여자5]

첫인상이 선하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에게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고 순수해 보여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신뢰감이 생겨서.... [참여자6, 참여자7]

교회에서 같이 다니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매일 한 번도 안빠지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되게 온순하고 착해 보이고 인상이 선해 보였어요. 일단 술, 담배도 안하고 성품이 온순했기 때문에.... [참여자8]

말이 재밌고 웃기고 위트가 있어서.... 과선후배로 만났는데 계속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좋았어요. 계속 같이 보니까 그냥 계속 좋아했어요. [참여자12, 참여자13]

교회에서 만나 학생회 임원 일을 하면서 가까워진 거 같아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미나 가치나 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관심이 있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오래 나누면서 친밀해진 거 같아요. [참여자15, 참여자16]

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에 대해 나도 그냥 친절하게 반응했을 뿐인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영화도 친구들과 자주 보러 다니고 만날 때마다 늘 즐겁고 유쾌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7]

참여자들은 배우자를 만나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만남을 가지면서 친하게 지내다보니 좋아지게 되었고, 성실해 보이는 외모, 자신이 좋아했던 외모 등 외모적인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음이 나타났다.

의미, 가치 등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함을 느껴 관계를 지속하기도 하였으며, 따뜻하게 잘 챙겨주고 자신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하며 상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호회 등 취미활동을 하며 만나게 되어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친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결혼을 선택

참여자들은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에서 상대방의 성격이 맘에 들거나 생각했던 기준에 맞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결혼을 결심함’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결혼을 선택’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결혼을 결정함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남편집에 대해 알고 있어서 집안에서 좋아했음	결혼을 결정함	결혼을 선택
자연스럽게 인연으로 느껴졌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면의 예쁜 모습이 있었음		
만나는 것을 부모님이 보게 되었음		
성실해서 나를 힘들게는 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하였음		
내가 생각했던 조건, 기준들에 맞았음		
가정의 어려움, 부모님에 대한 어려움들을 알게 되었음		
사람의 됴됨이가 괜찮았음		
사람 자체가 너무 바른 사람이고 주변에 평가도 좋고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었음		
외모에 반했음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음		
신뢰할 수 있었음		
나의 단점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음		
운순한 성품이 매력이었음		
믿음이 같았음		

저희 집에서 좋아했고 남편 집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깐 괜찮다고 시집보내라 하는 상황이었고, 나이가 어려도 나이 차이가 나도 보내라고 했고.... 거의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좋고 저보다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컸고 친구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늘 편지글을 쪽 써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 반성도 되고 그냥 정신적인 의지가 시작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연처럼 느껴져서 결혼한 것 같아요. [참여자10]

이 사람은 정확하게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쁜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정말 예쁘게 있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쁜 모습이 있어요. 내면적인 사랑이 많다고 해야겠죠. 굉장히 그랬어요. 나는 그게 보였고.... [참여자11]

선배들하고 같이 만난다고 만났다가 집에 갈 때 저희 집에 데려다 줬는데 새벽이었어요. 그 때 엄마가 봐가지고.... 나는 항상 좋아하는 선배였고.... [참여자12]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거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좋은 후배였고.... [참여자13]

중매로 만나 남편 쪽에서 결혼식을 빨리 올리자고 했거든요. 성실하고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는 안하겠구나, 굶어 죽이진 않겠구나, 무슨 일이건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이 맘에 들어서 1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조건에 통과했어요 남편이..... [참여자14]

가정적 어려움, 부모님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고.... [참여자15]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일단 사람이 순하고 말 많고 잘 까불고 순하고 착한게 좋았어요. 사람의 됴됨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거 같아요. 앞으로 이 사람이 잘 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앞으로 더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확신이었던터라고요.... [참여자16]

참여자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속하면서 배우자의 내면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고, 만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게 됴므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기회를 갖고 결혼을 선택하였으며, 중매로 만나 나를 힘들게 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결혼을 선택하였음이 나타났다.

부모의 삶을 보며 자신의 배우자 조건을 형성하였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 결혼을 선택하였으며, 배우자의 성품, 인성에 대한 주변의 좋은 평가, 어른스러운 모습, 이성애에 대한 자신의 기준, 외모에 빠져서 등의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였음이 드러났다.

(3) 공통된 가치관

참여자들은 성향과 가치관이 비슷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같으며 정치적 가치가 같아서 등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배우자와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공통된 가치성향’, ‘사회적 가치’, ‘인생관’, ‘신앙관’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공통된 가치관’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공통의 가치성향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생각이 그나마 가치가 비슷했음	공통된 가치성향	공통된 가치관
가치관하고 성향이 좀 비슷했음		
바라보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일맥상통함		
비슷하고 상반되지 않은 가치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주위에 나눠주고 살아감		
자녀양육관이 같음		
정치적 가치가 같음		

생각이 그나마 가치가 비슷했기 때문에, 자수성가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책임감 가져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정형화된 사람. 그런데 자기한테는 엄격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나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부드럽게 해줬던 거 같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참여자3]

같은 곳을 보고 있나 봐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이 가고 있네. [참여자11]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는 지가 할 수 있게 놔두자는 거는 통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 양육하면서, 예를 들면 학원 보내는 문제라든지 공부시키는 걸로 안맞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원하지 않는대로 받아들여 주는거, 그 양육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부딪힘은 없는거 같아요. [참여자17]

② 사회적 가치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남을 도와주고 불쌍하게 여김	사회적 가치	공통된 가치관
동물에 대한 연민		

동정심 면에서도 많이 더 통하는 거 같아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불쌍하게. 이런 것들은 참 많이 통하는 거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굴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럼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참여자6]

③ 인생관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인생관도 조금 비슷함	인생관	공통된 가치관
인생을 즐기자		
행복하게 살고 싶음		

가치관하고 성향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대화도 많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인생관도 조금 비슷하고요. 바라보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일맥상통하거든요. 크게 욕심없이 마음 편하면 최고지. 추구하는 가치관이 비슷하고 상반되지 않는 가치관인 거 같아요. [참여자4]

저희는 적당한 절약과 함께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물건을 사도 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것을 사서 누리고 싶고, 누리는 걸 포기하고 저금을 하고 이려고 싶지 않아요. 젊을 때는 절약했죠. 절약했는데 우리가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부터 안정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둘이서 즐기고 누리고 혜택보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껴라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7]

④ 신앙관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신앙적인 부분이 일치함	신앙관	공통된 가치관

일단은 신앙관이 맞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좀 맞지. 그게 또 신앙하고 연관이 지는 건데... [참여자10]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신앙의 가치관이나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했어요. 그런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참여자15]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라고 했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들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6]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가치관과 성향이 비슷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나 자녀양육관, 정치적 가치가 같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고 누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앙적 가치관, 삶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여 감사하는 등 공통된 가치관이 부부친밀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경제력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직장에 계속 다녀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고, 맞벌이로 생활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경제적 안정’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경제력’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경제적 안정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직장에 계속 다녀주는게 고마움, 큰 힘이 됨	경제적 안정	경제력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줌		
경제적인 안정을 더 찾고자 함		
맞벌이로 생활에 경제적으로 보탬을 줌		
남편 때문에 참 편하게 살았음		
아무진 면이 있어 고생을 안하게 해줬음		

끝까지 잘 다니고 그냥 계속 다녀 주는거 그게 굉장히 감사하죠. [참여자1]

본인의 승진이나 이런게 아니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좀 고맙죠. ...중략... 하루하루 회사생활이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마움이 좀 더 있는거죠. [참여자13]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냥 그래도 너무 비참하지 않게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거...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을 찾고자 하는 욕망. [참여자2]

어쨌든 밖에 나가서 직장일을 하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들고 복합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직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같이 맞벌이로 일을 하고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안스럽다 생각도 들고....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나 혼자 하는 걸 같이 도와주니까, 도와서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니까... [참여자5]

항상 참 고마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편해라고 편하게 살아라고 생각을 해서... 돈 안쓰는 사람, 안쓰고 야무진 면이 있어서 고생을 안시키 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6]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힘들어했음을 인식하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의 유지 수단인 경제력이 친밀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배려와 헌신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나를 위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을 느끼며, 서로를 챙겨주고 맞춰주는 행동, 몸이 아플 때 돌봄을 받고 의미없다고 느껴졌을 때 과감히 포기하는 부분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나에게 잘해줌’, ‘서로 의지함’, ‘과함한 포기’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배려와 헌신’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주고싶다는건 수용하시게 존중해주니까
 성실했어요 반응해주시고 성실하거든요
 배려보다는 **포용해주는건** 받아주는구나
 따뜻했는데 **보살펴주면** 따뜻했었죠
포용해주고 배려해주고 호감존중을
위로였던거 받아들여서 존중한다고
성장이라고 기다려주고 성장해오는
잘해주기만 노력하면서 안아주거나
챙겨주는거에 배려한다고 챙겨주면은
 맞추시고있다는 **변함없어요** 들어주더니
 맞춰가니까 **존중받는다는** 맞춰주시는
 성숙되어가는 **헌신적이시지만** 배려했었고
 일관성있었다고 배려해주는 존중해주는게
 체력적으로

[그림 8] '배려와 헌신'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① 나에게 잘해줌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성장을 위해 애를 많이 썼음	나에게 잘해줌	배려와 헌신
나를 위해주는 모습		
나를 위해 배려를 해주는구나 느낌		
나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함		
특권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적으로 다 해줌		
나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줌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참여자2]

제가 늦게 집에 가거나 할 때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하면은 제가 정리하고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하면서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그렇게 말하고 내가 추위를 타는 사람인데 제가 차를 타기 전에 미리 시트를 데워놓아요.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한테 놓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조치를 다 취해주고 먹을 수만 있게 해줘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위해서 참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참여자4]

나에게 끊임없이 잘했어요. 굉장히 정말 다른 집들은 남편이 잘한다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요. [참여자6]

전적으로 자기가 다 해주니까 불편함이 없다는 거는 너무나 제가 가진 어떤 특권처럼 느껴져요. 다 자기가 해결하니까. [참여자7]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자기 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냐가 아니고 아이구 엄마가 그래 이상하네 엄마가 잘못했네 이렇게 자꾸 받아주고 하니 그냥 편하고. [참여자12]

남편도 마찬가지로 힘든 순간이 많았을 거란 말이예요. 자기 요구대로 다 안됐을 거고. 부모님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매주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있었을거란 말예요. 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도 하고, 어쩔거나 내가 모신다면 되게 힘들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힘들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 지금 혼자 계시거든요. 내가 힘들걸 미리 계산해서 그런 말을 안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모시고 싶겠지만.... 그래서 그냥 서로에 대한 배려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14]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거든요. 집안일은 본인이 다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불만이 별로 없죠. [참여자14]

② 서로 의지함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서로를 챙겨주고 챙김을 받고 하는 것들	서로 의지함	배려와 헌신
몸이 아플 때 돌봐주고 하는 것들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		
사소한 것들을 다해주고 서로를 챙김		
서로에게 다 맞춰줌		

서로를 챙겨주고 챙김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참여자4]

서로를 위해서 그래도 시간을 내고 헌신해요. [참여자16]

저녁에 이렇게 막 술을 먹거나 피곤한데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애들, 이제 밥 챙긴다고 요리하고....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안하죠. 밥을 뭐 있는거 챙겨먹이면 되지 생각하는데 그래도 애들이니까 엄마로서 챙겨줘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서 요리를 막 아침에 정신 없이 막 하거든요. 그런걸 보면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여자13]

몸이 아프고 그럴 때 나를 돌봐주고 그랬어요. [참여자5]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같은 곳을 바라 보며... [참여자5]

사소한 것들을 다 해주는 거 같아요.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서로 챙김인거 같거든요. 뭔가를 왔을 때고 있고 해달라고 했을 때 요구했을 때 다 알아서 척척 해줬어요. 저를 다 맞춰줬어요. [참여자8]

그러니까 내가 내 생활을 조금 줄이고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해 준다는거. 남들은 다 하는 거지만 그건 나한테 노력이죠. [참여자14]

꾸준히 성장해 오는거 같아요. 사는게 그냥 성장했다고... 성장해 가는 거라고 봐야될 것 같아요. 애들 키운다고 정신 없었을 거고. 지금은 좀 더 성숙해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단계가 된거겠죠. ...중략... 사랑은 그냥 생기는게 아니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사랑을 해야지.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는 욕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맞추고자 해요. [참여자11]

조금 순종적이었다고 해야되나... 남편한테 헌신하고 애들 키우면서 시댁 대소사 다 챙기고 그리고 그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죠. [참여자1]

시간과 돈과 마음과 힘과 모든 정성까지 다 투자를 해야만이 유지되죠. 아니면 날라가죠. [참여자11]

③ 과감한 포기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는 과감히 포기함	과감한 포기	배려와 헌신

이제 막 같이 하려고 했던 일정들...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는 저는 과감히 포기를 했죠. 부부싸움이 안되는 이유가 이렇게 갈등을 안 일으켜요. 요지부동? 그니까 말을 막 내가 속상해서 말을 하면 '응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내가 굳이 이렇게 해도 그렇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조금씩 내 위주로 맞춰줬어요. [참여자 8]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배려받고 지지받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몸이 아플 때 돌봐주는 배우자의 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6) 의사소통과 지지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며,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들어주며 서로를 지지하였고, 이야기를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가장 약한 점을 판단과 비판없이 잘 들어주고 스스럼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으며 사소한 대화, 직장문제, 진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배우자와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자기를 개방’, ‘수용받는 대화’, ‘일상적인 대화’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의사소통과 지지’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재밌었으니까 이해했어요 의미였는지 의존감이라고
 잘해주기만 약한부분인데 심리적으로 얼굴표현들이 잘들어주고
 인정하거든요 사랑하기에도 보는거니까 사랑한다고 이어져왔던
 위로였던거 맞아떨어졌고 기쁨이예요 대화하면서 역동이라든지
 성격차이에서 기대는구나 공감을해요 기다려주고 성장해오는
 사랑했는데 공유하는거 인정하는거 감정이라고 살아갈수록
 바라봐줘도 가치충들은 의사표현을 존중해주고 변함없어요
 가치관들이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으로 배려해주고
친밀해지는 수용해주는 지지해주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말겨주는거
 받아들여서 존중하면서 정서적으로 유연함으로 배려한다고
 보배였구나 갈등상황을 이해하려고 감사하고요 보편적이진
 순간순간을 관심가져줄 가치관이라든지 긍정적인거 성장이라고
 열광적으로 깨달았어요 공유해주고 노력하면서 운명적이고
 연결시켜줬죠 미안하니까 내편이라든 사랑받는다 의지했어요
 살아오다가 보살펴주거나 애너지적으로 일치하시는
 어려움이라든지 보살펴주거나 애너지적으로 일치하시는
 재미있었던 익숙해져서 유연해지고 일상생활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림 9] ‘의사소통과 지지’에 대한 Word Cloud 분석 결과

① 자기를 개방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줌	자기를 개방	의사소통과 지지
얘기를 하며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찾았음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하고 들어줌		
자기에 대해 나에게 얘기함		

가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그때 그냥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 봄 하자고 하며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받아줘요. [참여자1, 참여자10]

저는 그냥 만져지는 외부적인 것보다 저희 얘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 얘기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밖에 없어요. 얘기하는거 자체가 편안하게 해주는거 같아요. [참여자10]

주로 내가 얘기를 해요. 남편은 말을 안해요. 어떤 것도 얘길 안해요. 그냥 다 들어만 주지. 얘기는 안하고 내가 일상 중에 힘들었던거, 스트레스 받는거 그런거 얘기하면 그냥 맞장구 쳐줘요. [참여자14]

이 부분이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 저 부분이 저랬으면 좋겠다 등 서로가 그냥...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거 같아요. 그냥 그렇게 했던거 같아요. [참여자2]

② 수용받는 대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말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말함	수용받는 대화	의사소통과 지지
공통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물꼬를 알게됨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주제나 흥미같은 것들이 비슷함		
스스럼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음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나눔		
가장 약한 점을 판단과 비판없이 잘 들어줌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본인이 뭐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요. [참여자3]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래서 이야기가 서로 자연스럽게 잘 주고 받아져요. [참여자17]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그냥 했지 중간에 뭐 대화가 뭐 단절되거나 이런 적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거 같은데요. [참여자8]

그 부분이 통해서 이야기가 됐나 싶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지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공통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거리를 물꼬를 제가 알게 되니까 이거를 물어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참여자3]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나 주제나 흥미 같은 것들이 비슷해서 저도 괜찮은거 같아요. [참여자4]

지나오고 보니 이제 스스로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참여자4]

그때는 그냥 연애감정으로 서로 애놓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지금 그나마 말이 통해 가지고 그나마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 안하고 그냥 제가 얘기하면 이 사람도 응해주고 이 사람 얘기하면 저도 응해주고... 아마 이런 것들이 그냥 선순환되는 느낌이에요. [참여자3]

아내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줘요. [참여자9]

제가 좋아하는거 찾아주기도 하고 영화를 같이 보면서 영화보면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못 보는 그 관점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영화보면서 요런 부분에서 난 어떻게 느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참여자8]

저의 가장 약하고 그런 점을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거죠. 판단없이 비판없이 잘 들어주고... 성인이 된 다음 부모님한테도 부모님들도 다 연로하시니까 사실 힘든 얘기는 안하게 되거든요. 좋은 얘기만 하게 돼. 나는 힘든 얘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하면 안되고... 근데 그거를 그래도 가장 시험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가 그러네요. 수용해 주는 사람... [참여자6]

③ 일상적인 대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사소한 대화를 많이함	일상적인 대화	의사소통과 지지
삶에 관한 얘기 등 상의를 하고 더 부드러워짐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의견을 얘기해 줌		
직장문제, 진로에 관한 얘기를 함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눔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		

대화를 많이 하고 막 그 자주 대화를 하고, 뭐 그거 아닌 시간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로 하루 있었던 일 그런 사소한 얘기를 하는 편이죠. [참여자5]

애들이 둘 다 군대에 가고 나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요. 삶에 관한 얘기라든지... 나는 뭐가 어땠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상의를 많이하게 되고... 오히려 더 부드러워졌다 그래야 되나... [참여자6]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정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그런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줄 때 그럴 때도 그렇고 친밀감이 더 심한 건 서로 그런거 같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도 친밀감 때문이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참여자6]

직장문제라든지 안그럼 내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저 거기에 대한 들어주는거... 그리고 내가 조금해 하면 뭐 좀 천천히 생각하라고 그런 얘기들... 그렇다고 많은 설명을 하거나 이러진 않고 짧게 그냥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떠냐고 요 정도로 얘기해 줘요. [참여자8]

애들이 태어나면서 애들 케어 때문에 모든게 애들 위주고 계속 돌아갔고 그래서 애들 이야기 외에는 특별하게 안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재미있는 이야기 들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직장 스트레스, 사람 스트레스,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주제들로 조금씩 넘어왔고 애들의 학업 관련된 이야기, 애들 다이어트이야기 항상 그런 쪽으로 넘어왔던거 같아요. [참여자13]

성향은 비슷했어요. 구체적으로 둘 만의 시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원하고 나도 원하고 이게 같은 거죠. [참여자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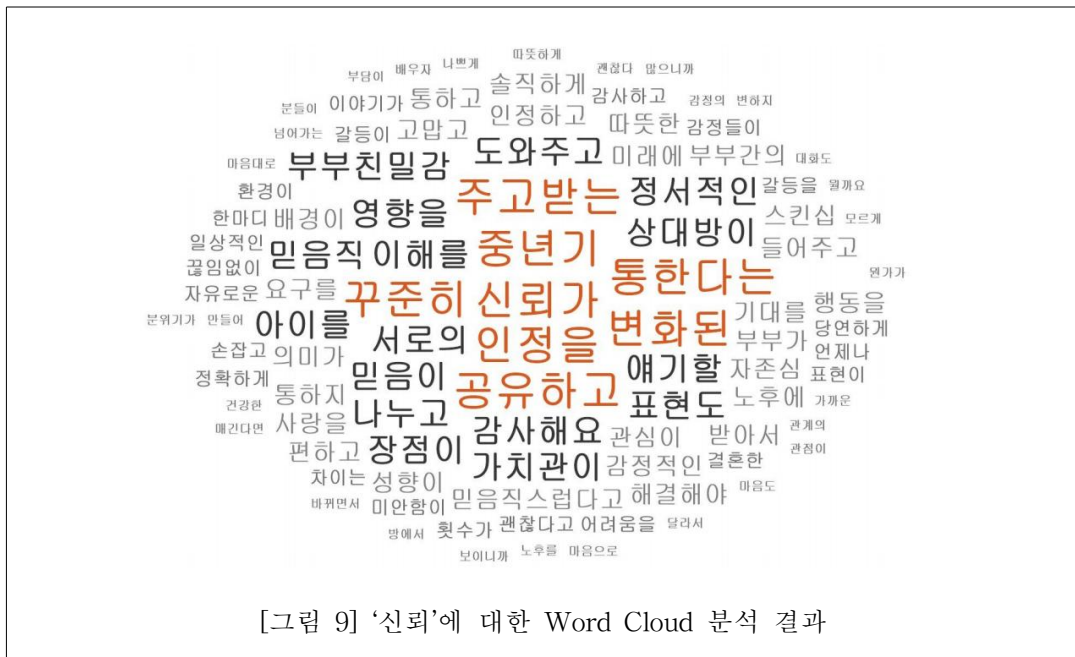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남편이 가장 편한 상태 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갈수록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네요. 부부애기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해요. [참여자17]

크게 욕심없이 마음 편하면 최고지 이렇게 노후를 살고 싶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 보면 소통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4]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자기개방의 대화, 수용받는 대화의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였고, 삶에 대한 의견나눔과 자녀에 대한 대화, 노후에 대한 대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신뢰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내 편이 되어주어 버팀목이 되었고, 지지해 주고 편안하게 받아주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느끼며, 변함이 없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믿음직스러워서 등의 이유로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배우자에 대한 믿음’, ‘긍정적 사고’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신뢰’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남편이 있어 든직함	내편이 되어주는 남편	신뢰
내 편이 있어 버팀목이라는 느낌		
남편을 믿음		
남편의 얘기가 다 맞아서 절대적인 신뢰가 생김		
내편이 아닌 것처럼 말해도 결국 내편이 되어주어 편안함		

남편이 있어서 든직해요. [참여자1]

내가 뭘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내 편이 있다는 거, 버팀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1]

가장 믿음직스러운건 언제나 내편이라는 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지지했
고 언제나 내편이라.... [참여자10]

그런 점이 저는 어른스럽게 느껴지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참여자17]

제가 남편을 믿는거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인제 시간이 가
면 갈수록 하나 맞고 두 개 맞고 세 개 맞고 다 맞고....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
요. 그러니까 신뢰가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3]

편안함. 그냥 신뢰. 아 이 사람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어 내편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내 편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저도 잘못했을 거예요. 저도 욕하고 감정을 냈을텐데 그걸 지적은 해요
아니 이제 그걸 짚어는 줘요. 이제 제가 저를 보게끔 짚어는 주면서 개가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걸 또 짚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거야 라고.... [참여자3]

② 배우자에 대한 믿음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지지해 주고 편안하게 받아주고 믿어주니 신뢰가 높아짐	배우자에 대한 믿음	신뢰
신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함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움		
사람이 변함이 없어서 신뢰로움		
가장 가까운 친구인거 같음		
거짓말을 안하고 솔직함		
그냥 서로를 믿음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않을거라는 신뢰감이랄까... [참여자1]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신뢰도 생겼고 믿음도 생겼고 저도 살면서 그래서 남편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에 갖는 신뢰도. 신뢰는 행동 하나에서 나온, 결과물은 추상적이지만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행동을 내가 봐오고 겪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거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20년이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뢰로웠거든요. [참여자4]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나이를 들면서까지 일을 하는건 힘들잖아요. 그런 걸 무릅쓰고 일을 한다는게 힘든 일인데 그거를 하니까 아무래도 대견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었을때야 뭐 젊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크게 육체적으로나 힘은 들었겠지만 지금만큼은 덜 힘들었을 거고 지금은 나이도 들도 더 힘들건데 직장생활을 하고 뭐 하는게 대견하고 좀 힘들어서 그 부분이 점수를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참여자5]

사람이 참 변함이 없다. 인간성 변함이 없다. 신뢰로 그냥 살고 있죠. 나의 약한 면을 보여주게 되고 약하면 어떤 때는 어두운 면 그런 것들을, 그림자 이런 것들을 나는 솔직히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데 내 생각이 맞는거 같아? 어때?라고 그런 것들을 가장 가까운 친구인거 야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건... [참여자6]

이제 애들도 커가면서 내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애들 케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이제 점점 애들이 커가면서 와이프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느꼈죠.

그러한 생각들을 그렇게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한 부분을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뭐 이런거는 옛날에 있었던거 같아. 있었었어... 근데 그걸 내가 아 이게 믿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아예 그냥 안하고 그냥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 [참여자13]

늘 믿음직스러운데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거. 항상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일도 그렇고 사람관계도 그렇고... 내거보다는 가족을 더 위하고 그래서 신뢰가 간다기 보다 늘 그냥 믿음직해요. [참여자14]

별로 속이는데 없어요. 서로 감정적인 거 생활적인 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핸드폰 비번도 없어요. 똑같아요. 감추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참여자11]

솔직하고 거짓말을 안하고, 그리고 표현도 해주고... 고마운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제 해줘서 고맙고... 속이지 않아요. [참여자12]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아는 한에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행동에서든 말에서든... [참여자14]

믿음직하고 되게 정직한 사람이예요. 그 사람은 그 뒤에 별다른게 없어. 속뜻이나 이런거 없이 그냥 정직한거. 앞뒤가 같은거. 솔직한 이런 것들은 되게 솔직한 표현을 하거든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라 가지고... [참여자17]

근데 인정 안해줄게 없잖아요. 뭐 도덕적으로 뭐 문제를 일으킨다던가 이런 적이 한번도 없고 그냥 변함없이 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취미활동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 부적절한 뭐 도박을 한다던가 이런 적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예 일상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별 그거는... 어디 나간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이 안되는 부분들이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함없는 것에 더 신뢰가 더 가는거죠. [참여자8]

그냥 서로를 믿었던거 같은데요. 네가 뭘 하든, 일을 그만뒀을 때도 믿었고 내가 일을 시작할 때도 나를 믿어줬고... [참여자17]

③ 긍정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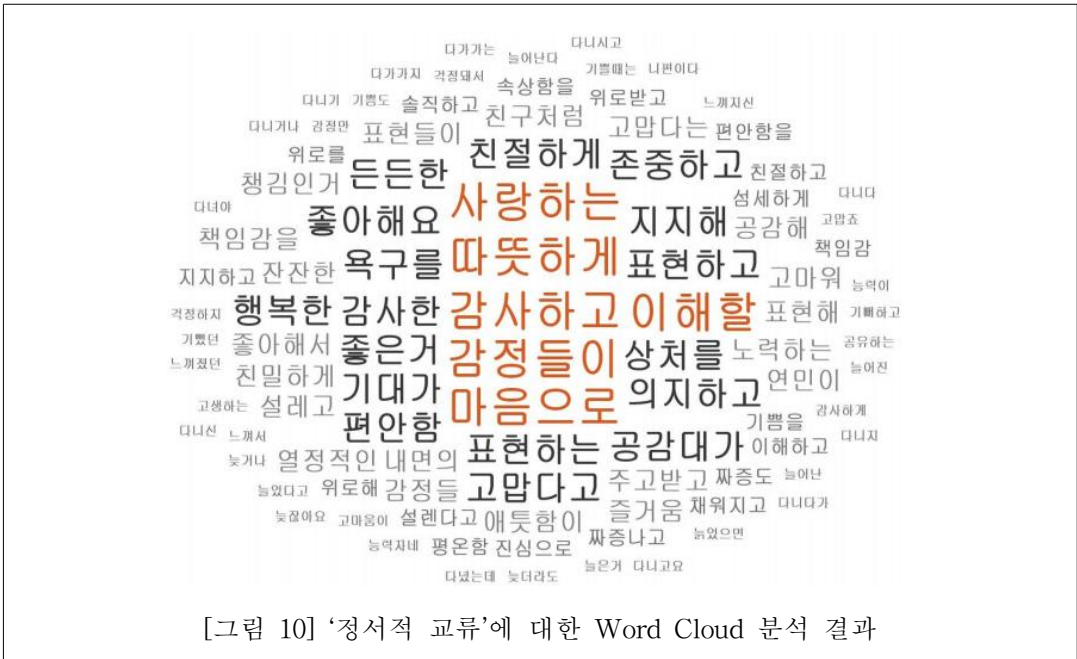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게 믿음직스러움	긍정적 사고	신뢰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라 그래야 되나, 비관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게 그게 가장 믿음직스러운거 같아. [참여자6]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자신에 대한 지지와 문제를 공유하고 의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행동들로 배우자를 믿고 의지하였으며, 인생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함없는 배우자의 믿음직한 모습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 느껴지며 정직하고 솔직한 남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신뢰가 결혼생활동안 지속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정서적 교류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며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정서 회복의 경험을 하고, 서로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등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서로에 대한 연민과 걱정, 미안함, 편안함, 배우자의 존재 자체로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긍정적 정서’, ‘위로받는 마음’,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함께 아파함’, ‘자녀에 대한 마음’, ‘정서적으로 깊어짐’, ‘존재 자체로서의 친밀감’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정서적 교류’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긍정적 정서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좋은 것을 보면 남편이 생각남	긍정적 정서	정서적 교류
평온함		
서로 감정을 주고받음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데를 가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남편이고, 저 옷 참 예쁘다 그러면은 신랑한테 어울릴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감정을 나누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친밀한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1]

지금같은 경우는 평온함, 평화, 고요.... [참여자2]

이제 부부사이에서 대화하고 하는게 편한거고 좋은 건데 그냥 기쁘다는게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그런 감정인거 같아요. [참여자13]

좀 많이 웃기는 편이거든요. 애들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같이 우리 애들하고 항상 같이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같이 앉아있으니까 이제 아빠가 많이 웃겨주고 얘기할 때 막 뒤로 넘어간 적 많거든요. 웃겨가지고.... [참여자12]

② 위로받는 마음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남편에게 속상한 것을 얘기해서 풀어냄	위로받는 마음	정서적 교류
공감, 지지받는다고 느껴짐		
온전하게 나를 바라봐줌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정서회복		

얘기를 해주니까 지지받는 느낌. 그냥 그쪽에서 되면서 어쨌든 관계적인 걸 본인 이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하면서 저를 어... 공감, 지지했던 것들이 이제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거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해를 해주는구나, 받아주는구나... 이제 자기가 겪어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는거 그게 제일 큰거 같아요. 지지해 주고 공감해 주는게 진심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지받고 공감받는다는거, 인정받는다는 거... [참여자3]

남편한테는 이제 정말로 온전하게 정말 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는게 제일 편한거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좋았던 거는 좋아서 막 기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같이 기뻐해 주겠죠. 그리고 불편한 거나 내가 부당했다는 거를 얘기하면은 얘기를 함으로써, 그냥 말을 함으로써 이게 좀 풀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얘기하면서 곧 당시의 감정이 있었을 때 그 감정이 격앙된거지 지나고 나면 낮아지잖아요. 그냥 그 얘기하면서 해소하고 그렇게 되는거 같아요. [참여자4]

③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표현을 하지 않지만 존경할 사람임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정서적 교류
배우자에게 고마움		
부담을 털어버리니 편안함		
서로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음		

저 사람도 똑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표현을 안하는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나는 힘들면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참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연민과 측은하다는 느낌.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참여자6]

꾸욱하게 남자처럼 꾸욱하게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이렇게... 뭐 물론 직장에 대

한 스트레스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곳곳하게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을, 애들 위해서 또 엄마로서 해야하는 도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고마워하는 감정들이 좀 생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친밀감이 이렇게 좀 생기는 거 같아요. [참여자13]

내가 의무적으로...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것도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을 털어버리니까 그 사람도 지금은 편해요. 저 사람도 귀한 존재고, 귀한 존재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정말 고맙네라고... [참여자6]

책임감. 책임감과 함께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도 더욱 더 괜찮은 사람, 자기도 괜찮은 사람. 이거를 서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거 같아요. [참여자7]

저는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죠. 어쨌거나 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주니까. 그걸로 써도 집안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내가 취미생활을 좀 많이 즐기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잖아요(웃음). 그동안에 모든 일을 해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봐요. 내가 신경 안쓰이게 음식물 쓰레기까지 자기가 다 처리하거든요. 분리수거, 청소, 빨래도 다 해주고 안하는게 없어요. 그냥 다음날 해주는게 없어요. 밥만 해놓으면 알아서 챙겨먹고 그거 말고는 남편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죠. [참여자14]

같이 있으면 즐겁죠. 재미있고 그리고 뭔가 계속 관계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항상 재밌고... 항상 같은 공간에 있다하더라도 딴 짓을 하면 재미없겠죠. 어쨌든 같이 있으면 더 좋아요. [참여자16]

④ 함께 아파함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서로가 불쌍하게 생각함	함께 아파함	정서적 교류
아플 때 걱정하고 있다고 느낌		

서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참여자7]

그냥 멍멍하다가 그냥 뭐 한 사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요새는 넷플릭스 드라마 그거 다 보니까 영화같이 보고 얘기하자 서로 지쳐서 왔다가 또 이렇게 같이 또 얘기하고 이런 거라서... 그게 최근들어서 슬프다는 거는 아버님 얘기했잖아 아버님이 지금 치매오셨어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지금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조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참여자10]

내가 아플 때 자기가 간절히 걱정하고 있다는걸 느낄 때 정말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아플 때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물질적인 거를 나한테 해줄 때 나는 이 선에서 조금만 아낀다고 여자는 그러잖아요. 한 단계 더 위에 거를 나에게 해주고 싶어할 때 항상 그렇게 자기 돈을 보태서 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밖에 못누리고 가잖아. 당신 더 좋은 거 누려봐. 이렇게 할 때... [참여자7]

아직 미안하죠. 그냥 그냥 편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이 눈물 안흘리게, 손에 물 안묻히게, 고생안하게 그게 목표였죠. 눈물 다 흘려줘, 손에 물을 다 묻히게 해서 이제 공부까지 한다고 고생 다 하죠. 미안하죠. 그리고 돈 많이 못벌어줘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하여튼 그래요. [참여자11]

책임감이 강하다 했잖아요.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도 힘들거든요. 그게 다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을 채근하지 않는거예요. 표시하진 않지만 저 사람 분명히 속이 지옥일 거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극하거나 밀어붙이면 더 힘들어할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냥 믿고 기다려줬는데 너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참여자17]

⑤ 자녀에 대한 마음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자녀들의 일로 기쁘고 슬픔	자녀에 대한 마음	정서적 교류

저는 쫓겨 기쁠 때는 일단 가족들이 다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애들도 와있고 할 때가 제일 기쁘죠. [참여자9]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다 이런 표현도 되게 잘해요. 생일이라서 아이들이 선물을 해준다거나 같이 식구들이 밥을 먹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도 잘하고... [참여자17]

⑥ 정서적으로 깊어짐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정서적인 부분이 더 깊어졌음	정서적으로 깊어짐	정서적 교류

편안함은 있죠 그냥 뭘 해도 그냥 아... 싫다. 거부감 이런 건 없고 그냥 편안함. 정서적인 부분에서 더 깊어졌기 때문에 정서적인 거나 이런 그런거는 점점 더 많아 지죠. 근데 왜 세월이 흐르면서 왜 일하면서 그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어떠한 이걸 만져주고 했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수고했고 힘들었지 하는 그 위로. 위로였던 거 같아요. 보면... 막 만져주면서 굳이 다 그거 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세월이 흐 르면서 그게 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신체적 느낌이... 저도 이제 은연 중에 무심결 에 막 그거해줄 때도 하루동안 고생하는걸 느껴지니까... [참여자8]

⑦ 존재 자체로서의 친밀감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존재 자체가 친밀하다고 생각함	존재 자체로서의 친밀함	정서적 교류

같이 밥 먹고 주말에 같이 있고 같이 숨쉬는 공간 자체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거 같은데... [참여자5]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던거 같고... [참여자8]

옆에 있는 자체가 친밀감이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무슨 뭐 많이 하는 거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항상 옆에 있다는거... [참여자9]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안놀아준다고 제가 투덜거리고 있는 거고... 잠 잘 때 나가 있으면 싫어하고 자다고 와서 밖에서 자고 있음 데리고 가서 같이 자야 되고... 콩깍지가 안 벗겨져 사실... [참여자11]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조금 와이프의 존재가 그냥 조금 더 느껴진다던가... 덩치 는 많이 커도 안기네... 내가 안겨야 될 판인데(웃음)... [참여자13]

그냥 같이 있으면 저는 느끼는 거 같은데요. 날 보면 나한테 방향을 두고 있으면... [참여자16]

나를 나로서 그냥 봐주는거.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일이면 할 수도 있다. 애들도 있고 내가 일도 안하는데 이런거 말고... 그런 조건 하지 않고 네가 일하는데 필요한 일이면 해야될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주는거.... [참여자17]

참여자들은 긍정적 정서, 위로받는 마음,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함께 아파함, 자녀에 대한 마음, 정서적으로 깊어짐, 존재 자체로서의 친밀감 등 정서적 교류를 통해 결혼생활동안 지속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에게 속상한 일을 이야기함으로 풀어내고 온전하게 자기를 바라봐주는 배우자를 통해 위로받는 반면 남편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만 주고 표현하지 못해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부는 서로의 아픈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고마움과 미안함을, 자녀의 일로 인해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며 깊이있는 정서적 교류를 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 배우자의 존재 자체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성생활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부부생활이 좋아지고, 같이 기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만족하였으며 신체적 접촉을 좋아하여 매일 마사지를 해주거나 자주 안아주는 행동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만족되는 성’, ‘스킨십’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성생활’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스킨십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신체적 접촉을 좋아함	스킨십	성생활
기대있으면 편하고 만지면 좋음		
매일 등쓰어주고 마사지함		
자주 안아줌		

손이라고 한 번 만져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살을 맞대고 같이 안아주

고 그렇게 했으니깐 그런게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옆에서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다든지 잘 때도 발하나 걸치고 잔다든지... 한 침대에 자면서 같이 자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다리를 올리고 손을 잡고 잔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식으로 안고 자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접촉을 하는 그게 나는 좀 큰 거 같아요.... [참여자1]

뭐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런 건 하거든요. 팔짱 끼고 손잡고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참여자17]

누워서 있으면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기대요. 그냥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기대있으면 좀 편하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져요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꾸물꾸물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무릎 만지고 하는거... 그게 너무 특별하게... [참여자3]

아침마다 우리 뭐하지 이래서 등쓸어주기. 그거는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 같지... 그거는 안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서로 이제부터 마사지 하는 그런 거? 신체적인 접촉은 이거 딱 해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마사지해 주고... 어깨를 만져주면 되게 좋아해요. 무심결에 뭐 안아주는 것도 친밀감도 느끼는 거 같고... [참여자8]

② 만족되는 성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성에 대해 얘기하고 부부생활이 좋아짐	만족되는 성	성생활
질적인 면에서 만족되는 성		
성관계가 굉장히 활발함		
같이 기쁘기 위해 노력하는 성		

왜냐면 제가 어 나 오늘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냥 자기가 어떤 욕구가 올라와도 욕구를 참는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진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확실히 해 가지고 되게 되면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냥 그게 느껴지니까 하겠죠 억지로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스 했을 때 동의했을 때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잘 맞는 거 같아요. [참여자10]

신혼 초에는 젊으니깐 젊은 혈기에 관계가 좋았고 근데 애들이 생기면서 그게 애들 때문에라도 안 되니깐 그 이제 그냥 그냥 그저 흘러왔던 거 같아요. 그렇게 흘러

오고 오다가 제가 먼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들이대는거죠. 그렇게 바뀌었던거 같아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안 되겠어 우리가 좀 더 성적으로 친밀해야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냥 그냥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참여자13]

자주는 성적 관계를 못 갖지만 그래도 뭐 만족스럽게(웃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평소에도 충분히 성관계뿐만 아니라 만족도나 횟수라든가 뭐 이렇게 다 연관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서로 만나서 스킨쉽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남편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자16]

성관계를 할 때 거기서 오는 느낌도 되게 표현도 잘하고 거부 당했을 때도 거부 당해서 상처받았다는 표현도 되게 잘 하고 성관계 예를 들어서 했는데 내가 아니야 아니야 말을 했을 때도 풍하게 있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되게 상처 받은 것 같다 무시 당한 거 같아 이런 이야기 되게 잘 하고.... [참여자17]

스킨십도 자주 하구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참여자4]

우리는 성관계가 기차게 잘 맞아요. 서로가 자기가 어디를 애무해달라 이런 것들을 서로가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성관계 하나 만큼은 정말 잘 맞았어요. [참여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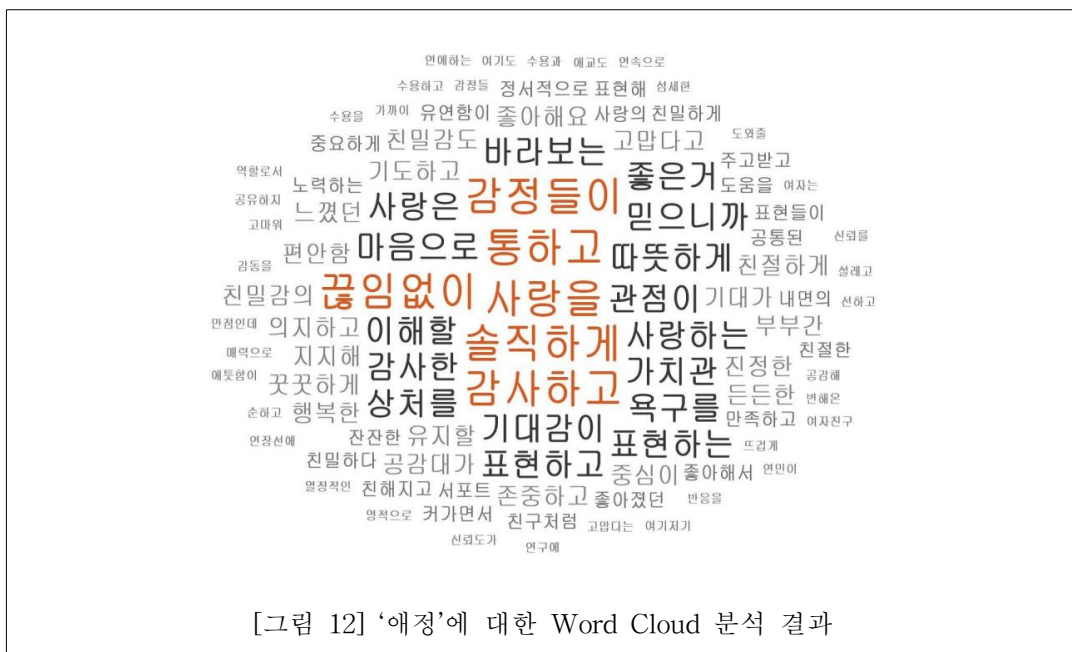
한 달에 어쩔 때는 한 번 한두 번 뭐 이렇게까지 차라리 젊은 때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내 말을 하고 이렇게 신뢰가 생기면서부터는 어차라리 그 횟수는 더 자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서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좀 크다 보니깐 좀 많지도 않고 하여튼 이제 이제 그게 좋아지면서 같이 부부생활도 같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게 더 불만은 없어졌던 거 같고.... [참여자3]

성관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리가 끊어졌는데 굉장히 활발한 편이었어요. 건강했던 거죠. 요즘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문제 될 정도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규칙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니까 딜레마죠. 같이 기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어요. [참여자7]

참여자들은 ‘만족되는 성’, ‘스킨십’으로 성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로를 기쁘게 하기위해 성에 대해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나누고 성관계도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혼 초기보다 신뢰가 생기면서 성관계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였고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10) 애정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도 배우자를 좋아하면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적 사랑으로 부부 간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느낌도 지속됨으로 인해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서로를 사랑함’, ‘지속되는 이성애’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애정’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서로를 사랑함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나를 너무 좋아해줌	서로를 사랑함	애정
남편이 그냥 좋은 사람이었음		
남편을 좋아함		
부부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설렘은 아니지만 익어가는 달달함		

너무 좋아한다는거, 좋아해 준다는 거... [참여자1]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떨어져 제발 좀 나 좀 놔뒀으면... 진짜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아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 많이 사랑, 맨날 전화하지... 내 폰 예쁜 마누라 이렇게 전화에도 저장되어 있어요. 전화 통화 예쁜 마누라 오늘 뭐 해? 뭐 하고 있어? 지금 밥 먹고 왔어. 뭐 이렇게 묻고, 예쁜 막 기본 멘트가 이렇게 시작하고요. 맨날 집에서 머리 쓰다듬고 맨날 나 사랑한다 맨날 이려고 있잖아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좋은 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근데 이게 친한 부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맨날 하는 거예요. [참여자10]

저는 남편이 괜찮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어떠한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그냥 남편이 좀 좋은 사람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조금 유연해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런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뭔가를 굉장히 강요할 필요도 없고... 저 또한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내가 매번 신경질적이고 또 막 신경질 적이기도 하고 감정조절도 안돼서 막 화도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남편은 맞서지 않았거든요. [참여자4]

말 그대로 동지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어떤 밀접한 접촉이 없다고 해서 친밀감이 사라졌다 이렇게 아니고 좀 그게 더 편해요. 성적인 접촉을 떠난 어떤 인간적인 접촉 이런 것들이 그게 더 편한... 견뎌 낸 힘은 아무래도 사랑이겠죠? 우리 부부의 사랑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겠죠. [참여자6]

이 환경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애들 크듯이 우리도 똑같이 성장하려고요. 그리고 애들이 크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의 환경에 맞춰서 사랑을 하고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11]

어찌보면 더 이게 처음에는 풋풋한 이거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익어가는 그야말로 진짜 더 그게 달달해져가나? 그니까 이게 막 설렘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막 더 이

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우리 둘 사이에는 그런 거가 느껴지네요. [참여자 8]

② 지속되는 이성애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오랜 시간 살았지만 이성으로 느껴짐	지속되는 이성애	애정

충분히 신뢰롭고 남편이 싫지 않으니깐 그리고 남편으로 19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성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 아직까지 저는 크게 뭐 떨어지지 않았고 서로가 이성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수가 어느 정도 되겠죠? 남편을 좋아하고 하는 것들... [참여자4]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자신을 좋아해주고 자신도 배우자를 좋아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결혼생활동안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갔다. 또한 배우자에게 현재도 이성적인 끌림 등이 있어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우자와 밀접함의 느낌을 표현하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애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11) 함께하고 싶어함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좋아하는 운동·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것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같은 취미를 공유함’,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함께하고 싶어함’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같은 취미를 공유함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같이 놀러 다니고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함께 있을 때	같은 취미를 공유함	함께하고 싶어함
같이 산책함		
함께 있어주고 같이 가주는 것		
요리를 같이함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함		
같이 여행다님		

어디 같이 영화보러 가고 같이 놀러다니고 그럴 때, 집에 앉아서 같이 뭐 TV를 본다든지 같이 함께 있을 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같이 영화를 보러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같이 형제들 만나서 술마시는거, 같이 느끼고 같이 있는게 좋아서.... [참여자1]

차도 마시고 TV를 본다던지 아니면 청소 좋아하니까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있
다던지.... 잘 나가요. 커피마시러 저 광안리까지도 가요. 저는 그런거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안놀아 줘서 그렇지. 그리고 회사에서나 어디 괜찮은데
있다하면 꼭 같이 가야돼요. 옛날에 탁구도 같이 쳤었고 볼링도 가르쳤고 산책가는
거 다 같이해요. [참여자11]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저녁에 가끔씩 산책하는거. 대공원 한 바퀴 돌고 그게 전부
예요. [참여자14]

내가 가니까 내가 가자 하니까 이제 와 주는 거고. 만약에 공치러 가는 것도 이
제 이 사람은 필요하니까 치러 가야하고 저는 공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
로 안 좋아하는 데도 햇빛 알레르기 있어서 갔다 오면 저는 힘들어요. 간지럽고 이
러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야된다 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가주는거...
[참여자3]

취미생활 같이 하러 다니고 주말이 되면 자전거 타러 다니고 또 다른 운동도 하
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장 풍족하고 가장 행복해 지금 시간이 조금 부
족할 뿐이지 그래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취미 생활을 같이
한 거는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 우리 시간이 되었을때죠. 그 전에는 아이
들 위주로 교육적으로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건 내가 별 다른 육체적인 활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직 나의 체력에 관련된 문제니까.... [참여자7]

저희가 그 애들 어릴 때부터 캠핑을 계속 다녔거든요. 거의 주말에는.... 근데 이제
한 지금 3~4년 전부터 이제 못다니고.... 그 전까지 계속 그렇게 다니니까, 항상 주
말에는 같이 있으면서.... [참여자12]

② 함께하는 시간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아내 옆에 있으면 친밀하다고 느껴짐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고 싶어함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		

같이 좋은 일을 하면은 뭐 재밌는 여행을 간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좋은 거고..저는 그냥 집사람 옆에 있으면 친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참여자5]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왜냐하면 뭐 차를 마셔도 같이 마시자 하고 영화도 보고 같이 항상 나한테 얘기하고 장 보러도 항상 같이 가자고 해요. 뭔가를 자꾸 같이 자질구레하게 소소하게 그냥 저를 같이 옆에 두고 싶어 하더라고.... 함께 하고.... 일상 생활을 같이 하는 거... 놀러도 같이 가고 산책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했던, 산책하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옛날 얘기도 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언제 여행 가자 이런 얘기 나누는 것도 우리한테 재미있고... [참여자8]

무조건 주말에는 나가자, 금요일날은 무조건 불금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약속 안잡고 거의 안잡거든요. 가족들과 같이 금요일은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같이... 함께 할 때... 집에서 항상 농구 보고 주말에는 그래도 캠핑을 그래도 소규모는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다니고, 그 다음에 주말, 일요일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나가서 일단 먹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뭐 나가서 구경을 하든 쇼핑을 가서 하든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는거. 그 다음에 불금은 항상 가족과 함께... [참여자13]

그냥 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하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죠. 그 전에는 사실 자기도 바쁘고 일에 치여서 그런 생각을 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애들 다 키웠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저하고 뭔가를 많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거 같아요. 항상 뭐 하면 나하고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최근부터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밀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참여자14]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두 번씩 가지고 있고... [참여자16]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같이 쇼핑을 가거나 이런 걸 하면 되게 즐거워해. 아이들하고 같이 가고 이제 같이 가면 가서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하면 불똥해요.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 해요 [참여자17]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냥 노후를 같이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 같이 산책하고 같이 둘이 같이 앉아서 보드 게임 하고... 둘이 산책을 참 자주 나갔어요. [참여자2]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친밀하다고 느꼈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취미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은 싫어하지만 배우자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함께하기도 하였으며, 산책과 여행으로 시간을 함께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2) 서로를 인정함

참여자들은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에 대해 알아가며 이해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서로를 알아감’, ‘서로를 인정함’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서로를 인정함’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서로를 알아감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남편의 편함과 불편함, 힘들어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냄	서로를 알아감	서로를 인정함
남편이 말했을 때 감정 등으로 잘 통합		
사고에 대한 이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		

생각이 통하고 그냥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모르지만 불편해 하고 있고 그거를 그냥 어 감각적으로 알아내는 거. 그냥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니면 한 사람이 쇼파에 있고 한 사람은 이쪽에 누워 있어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편해 보인다 아니면 조금 힘들어 보인다 뭐 생각을 하나 딱 생각하나 아니면 뭐 다른 걸 고민을 하나 이거를 그냥, 그냥 축으로 느낀다 해야 되나 느낌으로? [참여자3]

사고에 대한 이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얘기가 좀 잘 통했었고요. 좋을 때나 아니면 또 갈등상황이거나 아니면 나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 [참여자4]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관계는 약간 동업자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협조하는 관계 좀 더 그런 역할이 많은 거 같아요. 갑자기 애들이 이

제 다 커 가지고 집에 없어 가지고 우리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할 얘기 없고 서먹해지면 어떡하냐고 지금 애들한테만 너무 집중해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중에 우리 둘이 앉아서 할 얘기 없으면 어떡하냐고... 더 받고 싶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수 있고... [참여자17]

② 서로를 인정함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가정경제를 주도해 나가는데 남편이 인정해줌	서로를 인정함	서로를 인정함
밖에서 내 입장을 긍정적으로 세워줌		
부족한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줌		
서로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줌		
남편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인정해줌		
서로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었음		
내가 한 것에 대해 칭찬해줌		
잘하는 부분을 그냥 하도록 해주고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잘하라고 한 적이 없었음		

저희 신랑은 저한테 자기가 못 가진 그런 감각이 당신에게는 있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경제 분야에도 자기가 신경 못 쓰는 거를 이제 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계속 그런 거를 내가 다 가정경제를 내가 주도해 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신랑이 인정해 줘요. 근데 자기는 오직 회사에서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한 것을 내가 나름 경제 공부를 한다든지 관심이 있으니까 재테크 그런데서 그러더라고요..... [참여자7]

예를 들어서 부부 동반 모임만 만나고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부인이 생선을 다 발라 주잖아요. 가족들을 생선을 다 발라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다 그 부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에 나는 뼈째로 먹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생선 발라주는거 나는 더 안좋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나 입장을 세워줄 때 그렇게 했던 긍정적으로 나를 세워줘요. 이렇게 나의 자존감을 올려줄 때 그럴 때에 고맙고 우리 둘이는 뭐랄까 신랑은 나의 참 좋은 파트너구나 하고 친밀감이 느껴지죠. [참여자7]

부족한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때. [참여자7]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아예 안하지만, 예전에는 빨래도 있으면 좀 하지, 설거지도 있으면 좀 하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씩 이렇게 툭툭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피곤하면 못 하는 거고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존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표현이 되야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자13]

각자 그걸 인정해주는 거 같아요. 너무나도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자기는 내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도록 그걸 해 줬고, 저도 그냥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인정을 해 주고... [참여자8]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한 충분한 인정도 있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가 바쁘다 보니까 각자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뭐 간섭하거나 누리지 못했던 거 같기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9]

NO가 없어요 저도 안 하지만 이 사람도 저한테 NO를 안해요. 웬만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낚시 하겠다하면 가래요. 공치러 간다 해도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NO가 없어요 제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제동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요 이 사람이 그게 제일 장점이죠. 인정해주고 내가 하고자 한다면 그냥 하세요 그래요. [참여자11]

하기를 원하는 대로 했고 그것을 또 한다고 하면 도와주고 밀어 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생각도 달라졌죠. 서로에 대해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서로가 이제 인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10년이란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조율하고 바뀐다고 해야 하나 이거는 바뀌는 개념하고 좀 다르게 인정하는... [참여자16]

어쨌든 결정은 내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 거 같아요.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토를 안다는 느낌.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공부를 해갖고 되겠나 나가서 일을 하나라도 더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공부가 왜 필요해? 왜 더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이런 이런 이유로 필요해 이러면 아 내가 하는 일에서 이 공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지? [참여자17]

많이 저하고 다르게 감성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맞춰 가는 과정들은 있었던 거 같아요. 크게 나한테 요구했던 건 아닌데 한 거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맛있었다고 하든지 칭찬 해 준다면가 그런 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잘하는 부분을 그냥 하도록 했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잘하라고 한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8]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 성격. 저는 움직이길 싫어하는 성격(웃음) 그냥 원하

는 거 하게 해주는 거? [참여자9]

참여자들은 결혼생활동안 배우자가 느끼는 불편함, 편함 등을 알아내고 상대방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자신과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배우자를 존중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자율성

참여자들은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에 대해 알아가며 이해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자유로워짐’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자율성’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함	자유로워짐	자율성
혼자 서니까 동등하게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듦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게 중심을 세움		
나다운 모습으로 충실하게 나아가며 둘이 함께 함		

저는 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고, 그 각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요소가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 저도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여기도 계속 이래 하면서 사실은 긴 만남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녁에 짧은 만남, 각자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꼭 그렇게 혼자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네 그게 있었던 거 같아요. 좀 독립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8]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면 내가 또 부담스러울 텐데 자기 나름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애쓰고 뭐든지 좀 해 보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좀 덩달아 마음이 가벼워서 더 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상대성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변한 것도 있지만 내가 부담이 덜 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든지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러면 내가 막 도망가고 싶을텐데. 혼자 서니까 동등하게 같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참여자6]

아프고 나니 그때부터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조금 더 이제 내가 우선이 조금 많이 되어 왔던 거 같아요. 나는 나로서는 조금 더 이제 나를 챙기게 된 거고... 애들이 좀 크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 애들이 어리니깐 당신은 이것도 안되고 당신은 저것도 안 되고 당신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던 남편이 이제 더 이상은 애들 핑계를 댈 수도 없을 만큼 애들이 커버렸으니까... [참여자1]

신랑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던 그런 나였는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이 있구나 그래서 신랑에 의해서 행복, 불행이 좌우되지 않고 나 스스로가 정말 진정 행복할 수 있도록 나를 중심에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변해 갔어요. 이제 나의 행복 불행을 좌지우지하던 것들이 바깥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내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계속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참여자7]

집에서 늘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아 내였지만 지금은 그 불안할 수 있겠지만 독립적으로 알아서 할 일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아닐까... [참여자17]

참여자들은 자기 챙김을 하면서 자유로워졌고 배우자가 싫어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혼자서 하면서 배우자에게도 허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로 살아감으로써,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것으로 친밀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14) 이해하는 부부

참여자들은 결혼기간동안 배우자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지지받는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였고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안쓰러움과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갈등해소’, ‘배우자에 대한 이해’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이해하는 부부’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갈등 해소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사람이 변했음	갈등 해소	이해하는 부부
나의 말을 잘 들어줌		
나의 감정들을 받아주었음		

사람이 살짝 변했다 싶음을 느끼겠더니 신기할 정도로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참여자2]

제가 바뀌면서 또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말하는게 조금 정리가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여자3]

그 전까지는 같이 살아왔어도 서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이런 힘든 부분을 집사람이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뭐 좋은 거 같네요. [참여자5]

이 사람이 변하면서 다 변한거죠. [참여자11]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말을 했으면 알았을텐데 말을 안하니까 몰랐던 그런 것들. 막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말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그런 본인의 힘들었던 것들을 처음으로 한 번 이렇게 뺄 했을 때, 아 그니까 내가 몰랐던 그런거죠. [참여자12]

② 배우자에 대한 이해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직장에서의 힘들음을 견뎌내서 대단하다 생각됨	배우자에 대한 이해	이해하는 부부
공부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해가 됨		
내가 바뀌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함		
내 생각이 부드러워지면서 정리가 됨		
남편 행동의 변화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함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함		
기대를 내려놓음		
남편에게 맞춰줌		

애기했다시피 너무 다르니까 나는 진짜 안부지런하고 나는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들고 근데 그런거를 말을 할 성격이 아니니까 그거 속으로는 그랬겠구나... [참여자12]

내가 먼저 표현을 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나는 이제 그걸 바랬고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얼마나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었을텐데... 이런 것들을 내가 표현을 안해줘서 좀 섭섭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표현을 좀 더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3]

③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남편에 대한 연민, 안쓰러움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이해하는 부부
상대의 약해진 모습이 측은함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과 고마움		
남편이 측은해 보임		
남편이 안되고 외롭겠다고 생각됨		
이 사람이 많이 약해지네 측은하기도 하고 늙었네라는 잔함과 아쉬움		

그 사람 자체,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안써. 나하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딱 차 바꾸는 거 밖에 없고 정말 뭐 걸땀도 안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난 참 억울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없이 그런 거 보니까 인간적인 연민과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잘해 줘요. [참여자6]

이 사람이 많이 약해지네... 측은하기도 하고... [참여자7]

제일 큰 변화는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지금까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또 이 사람하고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나하고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다는걸 알게 되니까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 [참여자14]

참여자들은 배우자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갈등해소가 되었고 자신과 배우자가 변화됨으로써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 배우자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느끼고 갈등해소와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5) 노력하는 부부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속마음을 나누고 공감해주었고 결혼생활동안 문제없이 편안하게 지내왔으며,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는 배우자와 노후를 같이하며 행복하게 살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나를 위해주는 배우자’, ‘행복을 위한 노력’, ‘지금처럼 함께’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노력하는 부부’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나를 위해주는 배우자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아무 문제없이 편안함	나를 위해주는 배우자	노력하는 부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		
변함없이 서로를 위함		
존재 자체로 감사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는 배우자		

지금 우리가 행복감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편안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준 거죠. 딸이 있으면 막 이렇게 좀 가족 자체가 약간 시끌시끌하면서 막 애뜻한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는 다들 남자 아빠, 아들 둘, 강아지가 남자거든요. 그러니깐 집안이 조용해요. 사고 안 치고 문제 안 일으키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을 해요. [참여자14]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감춤없이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하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꺼리낌 없는 거잖아요. 잘 맞거든요. 그렇고 그게 친밀한거지. [참여자10]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잘 되고 있으니깐. 특별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 하면은 아직까지도 뭐 완성됐다 할 순 없지만 충분히 조율하고 언제 나아갈 힘이 있으니까... [참여자16]

② 행복을 위한 노력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행복을 위한 노력	행복을 위한 노력	노력하는 부부

일단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하지만 또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기본 노후자금마련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금전적인게 없으면 나중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잘 모아서 정리를 잘 하고 그리고 자기 서로가 이제 그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퇴직 후에 뭘 해야 될 지도 저도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정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요렇게 하면... [참여자10]

제가 아직은 조금 더 조금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하는 거고 아직 이제 애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고, 뭐 제 스스로 생각에 아직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빚도 당감도 아직 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여자13]

만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역할로서 저도 '다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남편다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처럼 각자 '다움'을 생각하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15]

③ 지금처럼 함께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신뢰하며 지금처럼 살기	지금처럼 함께	노력하는 부부

물론 이제 그 행복감이 내 감정의 기복이기도 하지만, 그게 변하진 않거든요. 저희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변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항상 회복에 어떤 그게 탄력이 있으니까... 탄성의 법칙이라 하나? 돌아오기 때문에... [참여자8]

부부이긴 하지만 내 걸 충분히 즐기고 있고 남편에게도 충분히 본인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나 함께 해야 되는 순간 있으면 충분히 그 거기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자17]

참여자들은 결혼생활동안 부부관계에서 대화와 지지, 정서적 교류를 통해 배우자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도 ‘나를 위해 주는 배우자’와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6) 의지하는 부부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에서의 힘든 부분을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위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서로를 위로함’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의지하는 부부’의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켰다.

① 서로를 위로함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점을 얘기함	서로를 위로함	의지하는 부부
서로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함		
부부가 얘기하니 서로 위로가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		

보통 하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그러면 안되는데 하면서 한 잔 먹고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주예요. 그러면 와이프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들어봐도 맞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서도 공유해 주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같긴 해요. [참여자13]

최근에는 우리 서로 힘든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5]

서로 얘기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좋지만 부부끼리 그런거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서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여자5]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렇게 저는 좋으니까. 와이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본인 스트레스 푸는 거고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게 저희들의 장점인거 같아요. 서로 회사생활도 하고, 애들이 우리 관리하는 쪽에서 없어지니까 그

런 계기가 더 많아지고 자리가 많아지고 그렇게 했던거 같아요. [참여자13]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대인관계에서의 힘든 점, 직장스트레스 등을 공유하면서 공감해 주고 위로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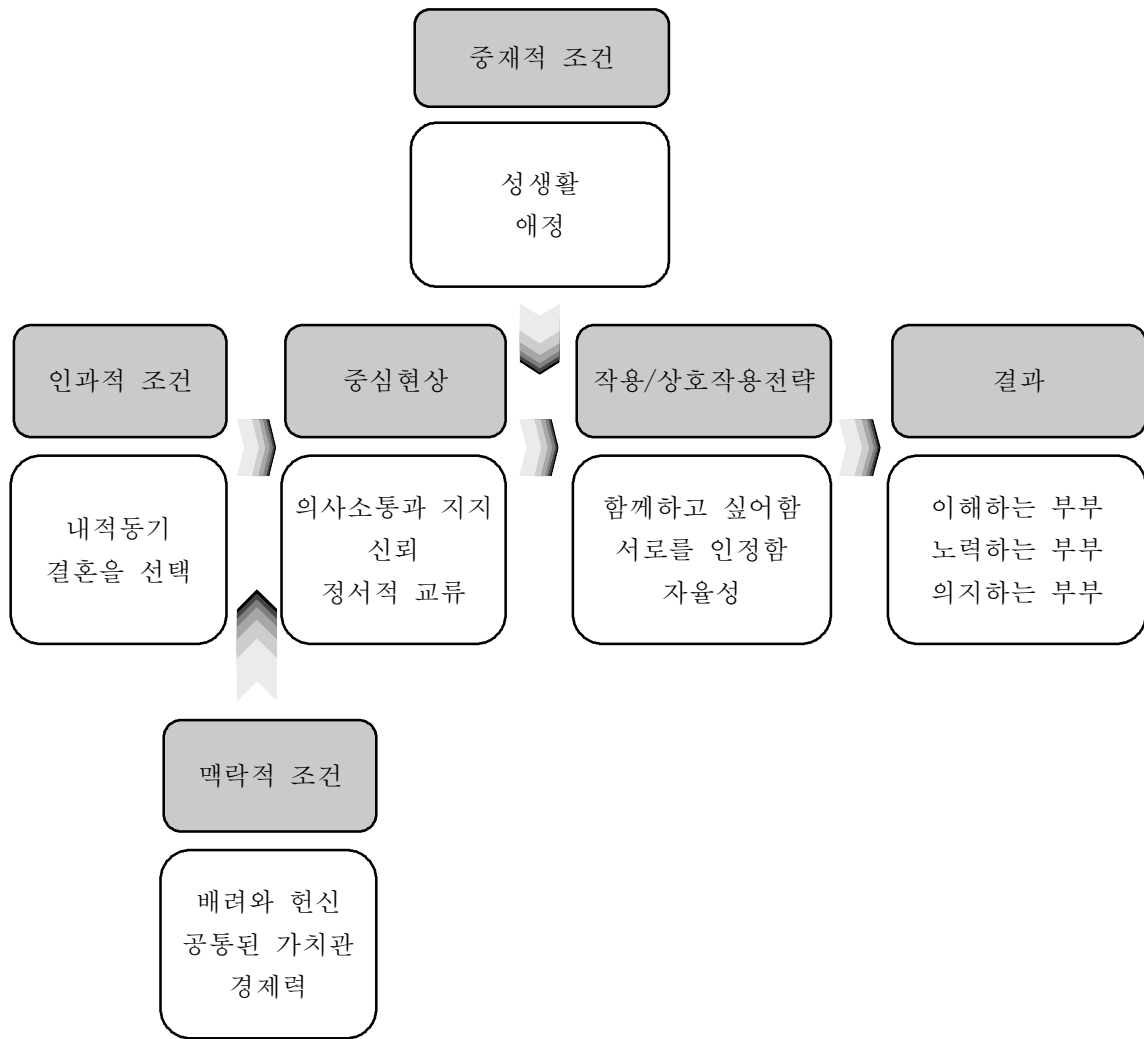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중년 부부가 ‘내적 동기’로 ‘결혼을 선택’하여 결혼생활동안 ‘배려와 헌신’,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 ‘성생활’, ‘애정’,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을 통해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결혼생활에서 ‘이해하는 부부’, ‘노력하는 부부’, ‘의지하는 부부’로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축코딩

축 코딩은 개방코딩의 연장으로 개방코딩 동안에 발견되는 범주들과 하위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들의 변화와 과정의 증거를 찾는 과정을 말한다. 축 코딩을 바탕으로 범주들의 논리적, 실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한다. Strauss & Corbin(1998)에 따르면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분류하고 이들이 중심현상을 축으로 하여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다.

1)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범주 분석

개방코딩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6개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간의 관련성을 축코딩 과정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10>는 패러다임을 도식화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중년 부부의 친밀감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촉진시키는 일과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Strauss & Corbin, 1998). 원자료의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라는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조건은 ‘내적 동기’, ‘결혼을 선택’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를 처음 만난 후 만남을 지속하면서 나에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잘 챙겨주며 공통 관심사가 많아 즐겁고 유쾌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나의 단점을 품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인 ‘내적 동기’에 대한 속성은 [정도] 면에서 ‘강함’과 ‘약함’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결혼을 선택’에 대한 속성은 [수준] 면에서 ‘결정적’과 ‘누진적’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9>에 제시되었다.

<표 9>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내적 동기	정도	강함-약함
결혼을 선택	수준	결정적-누진적

(2)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적인 생각이나 사건으로서 ‘여기서 관심의 주된 문제는 무엇이고 경험은 무엇인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8). 참여자들은 행복을 꿈꾸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다양한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통된 가치관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헌신 등을 통해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은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이다. ‘의사소통과 지지’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는 ‘자기를 개방’, ‘수용받는 대화’, ‘일상적인 대화’로 드러났으며, ‘신뢰’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는 ‘배우자에 대한 믿음’, ‘긍정적 사고’, ‘내편이 되어주는 남편’, ‘신체적 건강함’으로, ‘정서적 교류’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긍정적 정서’, ‘위로받는 마음’, ‘함께 아파함’, ‘자녀에 대한 마음’, ‘정서적으로 깊어짐’, ‘존재 자체로서의 친밀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심현상인 ‘의사소통과 지지’에 대한 속성은 [지속성] 면에서 ‘일시적’과 ‘지속적’ 차원으로 구분되었고, ‘신뢰’에 대한 속성은 [지속성] 면에서 ‘일시적’과 ‘지속적’ 차원으로, ‘정서적 교류’에 대한 속성은 [정도] 면에서 ‘큼’과 ‘작음’으로 구분되었다. 중심현상에 대한 속성과 차원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의사소통과 지지	지속성	일시적-지속적
신뢰	지속성	일시적-지속적
정서적 교류	정도	큼-작음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특정 속성인 중심현상의 속성을 생성하는 조건들의 집합이다. 즉, 어떤 현상에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인 조건이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준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 결과 ‘배려와 헌신’,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이 중심현상인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을 살펴보면 ‘배려와 헌신’ 속성은 [지속성] 면에서 ‘일시적’과 ‘지속적’ 차원으로, ‘공통된 가치관’ 속성은 [본질] 면에서 ‘현실적’과 ‘이상적’ 차원으로, ‘경제력’의 속성은 [능력수준] 면에서 ‘충분함’과 ‘부족함’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배려와 헌신	지속성	일시적-지속적
공통된 가치관	본질	현실적-이상적
경제력	능력수준	충분함-부족함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 대해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장려하거나 강요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의 영향을 변화시켜 현상의 영향을 완화한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 결과 ‘성생활’, ‘애정’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로 나타났다.

‘성생활’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많음’과 ‘적음’ 차원으로, ‘애정’의 속성은 [수준]에 따라 ‘충분함’과 ‘부족함’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2>로 제시하였다.

<표 12>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성생활	정도	많음-적음
애정	수준	충분함-부족함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목표 지향적이며 현상이 맥락적 조건과 특정한 조건 하에서 나타는 것처럼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한 것이다. 즉 현상에 대하여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서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의 전략으로 부부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함께하고 싶어함’은 배우자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부부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전략으로 활용되었고, ‘서로를 인정함’은 배우자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친밀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범주들은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판단되어 상정하였다.

‘함께하고 싶어함’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 차원으로, ‘서로를 인정함’의 속성은 [태도] 면에서 ‘적극적’과 ‘소극적’ 차원으로, ‘자율성’의 속성은 [태도] 면에서 ‘적극적’과 ‘소극적’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작용/상호작용의 속성과 차원은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함께하고 싶어함	정도	강함-약함
서로를 인정함	태도	적극적-소극적
자율성	태도	적극적-소극적

(6) 결과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산물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자료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라는 현상이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이라는 전략을 수행한 결과, ‘이해하는 부부’, ‘노력하는 부부’, ‘의지하는 부부’라는 결과로 발전했다.

‘이해하는 부부’의 속성은 [태도]에 따라 ‘적극적’과 ‘소극적’ 차원으로, ‘노력하는 부부’의 속성은 [지속성]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 차원으로, ‘의지하는 부부’ 속성은 [인식정도] 면에서 ‘뚜렷함’과 ‘미약함’으로 구분되었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이해하는 부부	태도	적극적-소극적
노력하는 부부	지속성	지속적-일시적
의지하는 부부	인식정도	뚜렷함-미약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 부부의 친밀감은 중심현상인 ‘의사소통과 지지’에 대한 속성은 [지속성] 면에서 ‘일시적’과 ‘지속적’ 차원으로 구분되었고, ‘신뢰’에 대한 속성은 [지속성] 면에서 ‘일시적’과 ‘지속적’ 차원으로, ‘정서적 교류’에 대한 속성은 [정도] 면에서 ‘큼’과 ‘작음’으로 구분되었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조건인 ‘내적 동기’에 대한 속성은 [정도] 면에서 ‘강함’과 ‘약함’ 차원으로 구분되었으

며, ‘결혼을 선택’에 대한 속성은 [수준] 면에서 ‘결정적’과 ‘누진적’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을 살펴보면 ‘공통된 가치관’ 속성은 [본질] 면에서 ‘현실적’과 ‘이상적’ 차원으로, ‘경제력’의 속성은 [능력수준] 면에서 ‘충분함’과 ‘부족함’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인 ‘성생활’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많음’과 ‘적음’ 차원으로, ‘애정’의 속성은 [수준]에 따라 ‘충분함’과 ‘부족함’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인 ‘함께하고 싶어함’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강함’과 ‘약함’ 차원으로, ‘서로를 인정함’의 속성은 [태도] 면에서 ‘적극적’과 ‘소극적’ 차원으로, ‘자율성’의 속성은 [태도] 면에서 ‘적극적’과 ‘소극적’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결과 ‘이해하는 부부’의 속성은 [태도]에 따라 ‘적극적’과 ‘소극적’ 차원으로, ‘노력하는 부부’의 속성은 [지속성]에 따라 ‘지속적’과 ‘일시적’ 차원으로, ‘의지하는 부부’ 속성은 [인식정도] 면에서 ‘뚜렷함’과 ‘미약함’으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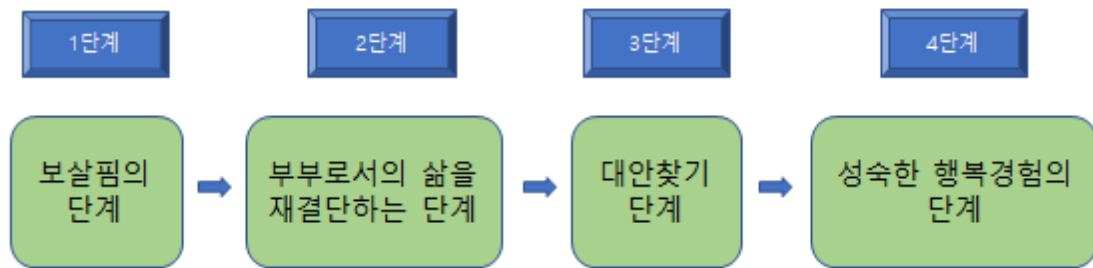
2) 과정분석

범주화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연구참여자들에게서 행동적, 사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과정분석이 필요하다. 이 과정분석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변화, 인식의 변화에 대한 모형을 구성해낼 수 있다. 과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작용/상호작용이 변화하고 그대로 지속하고 또는 역행하는가, 혹은 왜 사건의 발전이 있고, 무엇이 상황의 변화에 맞서 작용/상호작용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주목함으로써 전개되는 사건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범주를 통합하는 과정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어떠한 과정으로 내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과정을 분석할 때 연구자들은 위에서 제시된 연속적인 연결점에 주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연구참여자의 반응이나 행동,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단계와 그림으로 제시하거나 개념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생활동안 나타난 부부친밀감의 경험을 순차적

과정으로 분석한 결과 ‘보살핌의 단계’,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 ‘대안찾기 단계’,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 총 4단계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4]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과정분석 모형

참여자들은 인과적 조건의 ‘내적동기’로 배우자와 ‘결혼을 선택’하였고 ‘배려와 헌신’으로 범주화한 나에게 잘해주고 서로 의지하며, 때로는 과감한 포기를 하고 ‘공통된 가치관’으로 범주화한 공통된 가치성향과 인생관, 사회적 가치, 신앙관과 ‘경제력’으로 범주화한 ‘경제적 안정’을 느끼며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가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느끼는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부부 간의 노력으로 보여지는 바 ‘보살핌의 단계’로 명명하였다.

중심현상인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는 참여자들이 배우자에게 자기를 개방하고 수용받는 대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배우자를 신뢰함으로써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배우자의 존재 자체로서 친밀함을 느끼게 되면서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로 보았다.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한 참여자는 서로를 사랑하고 만족되는 성생활을 위해 서로 노력하였고 서로를 알아가고 인정하기 위해 함께하고 싶어 하였으며,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더 키워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대안찾기단계’라고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배우자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안쓰럽게 생각하였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단계를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라고 구분하였다.

① 보살핌의 단계

‘보살핌의 단계’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 경험의 첫 번째 단계로,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친밀감의 경험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결혼생활동안 자신에게 잘해주는 배우자의 행동과 서로에게 맞춰주고 챙겨주는 행동, 특히 아플 때 내 곁에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행동 등의 이유로 친밀감을 경험하였다.

배우자와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돌봐주는 행동들과 서로를 챙겨며 챙김을 받는 행동, 사소한 것들을 다해주고 서로를 챙기면서 서로에게 의지하였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는 과감히 포기하면서 친밀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하였다.

배우자와 가치관과 성향이 비슷하고 자녀 양육가치관, 인생을 대하는 태도 등이 비슷하였고, 힘들지만 직장을 계속 다니는 배우자에게 고마움과 연민의 감정이 동반되었다. 부부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애를 쓰고 배우자가 나를 위해 배려를 해주며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모습에서 배우자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보살핌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②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는 배우자와 서로의 얘기를 주고 받으며 수용 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으로 배우자를 더 챙기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매일 옆에 함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든든함을 주었고 배우자의 존재 자체로서 부부관계에서 힘이 난다고 하였다.

③ 대안찾기 단계

참여자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취미를 함께하는 등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위해 서로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인정하였으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중재적 조건인 성생활이나 애정에 따라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④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는 갈등해소를 하고 더욱 견고해진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니 부부가 운명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노후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로를 위해주고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하며 서로 신뢰하면서 지금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 인과적 조건인 ‘내적 동기’, ‘결혼을 선택’을 통해 결혼생활동안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가 중심현상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맥락적 조건인 ‘배려와 헌신’,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생활’, ‘애정’이 중재적 조건으로써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었으며,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활용되어 ‘이해하는 부부’, ‘노력하는 부부’, ‘의지하는 부부’의 결과로 발전하여 친밀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순차적 과정으로 분석한 결과 ‘보살핌의 단계’,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 ‘대안찾기 단계’,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 총 4단계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중년 부부가 친밀감을 경험하며 결혼생활동안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갈등을 해소하며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감이 결혼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부부친밀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고 사료된다.

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 이야기 윤곽 적기, 메모 정리와 검토하기, 도표 사용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해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모든 개념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범주를

파악해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는 핵심범주를 도출하기 위해 16개의 상위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적용해 보고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였다. 핵심범주는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과 범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이야기 윤곽은 연구에 참여한 중년 부부의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친밀감에 대해 전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1) 핵심범주

연구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연구 내용이 무엇이며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분석의 산물을 추상적인 용어로 농축시켜 놓은 것이다. 핵심범주는 가장 중심적이어서 다른 주요 범주들이 이것에 연관될 수 있어야 하며 자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 가능한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로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야기 윤곽을 개념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서술적인 문장으로 만들었다.

◎ 핵심범주 :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

연구참여자들의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을 분석한 결과 가장 핵심적인 범주는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배우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배려나 공통된 가치관 등으로 결혼을 선택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부부갈등 등 다양한 내용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자녀 성장기를 거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고 서로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우자에 대해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핵심범주는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제시하였다.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표 15>와 같다.

<표 15>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개념	속성	차원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	정도	강함-약함

2) 이야기 윤곽 전개

이야기 윤곽(story line)은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와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각 범주 간의 관계를 서술적인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나타난 부부친밀감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범주를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명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헌신하고 사랑으로 다가온 배우자를 만날수록 성실하고 진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온화하고 변함없는 성품과 일관된 행동과 태도로 신뢰를 쌓았으며 그것이 상대에 대한 매력으로 작용하면서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결혼 전에 배우자의 매력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삶의 과정에서 장애물로 나타났고 상대방의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자녀양육기에는 자녀를 키우는데 집중하게 되고 자녀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았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잘못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후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 수용하고 배려해주며 챙겨주고 챙김을 받는 행동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아플 때 내 곁에서 돌봐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며 배우자의 존재 자체로 힘을 얻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혼란스러움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여러 외부적인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부부친밀감이었다. 갈등을 해결해가며 부부관계가 더욱 견고해진 부부는 애정을 주고받으며 배우자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후회하지 않도록 배우자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서로를 측은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니 부부가 운명적 관계이며 배우자가 자신의 인생을 함께 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어 두 사람의 애정적 관계는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입장과 인격을 존중하여 상대방을 수용하고 인정해줌으로서 부부관계의 역할 적응과 인격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부친밀감에 대해 노력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변화를 보였다. 부부 간의 깊은 대화와 관심에 대한 의지적 실천의 필요성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배우자와 동반자적인 관계가 부부친밀감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지한 참여자들은 삶에서 동료애의 의지를 통해 배우자와 깊은 우정을 실천하는 친밀감을 향상시켰다.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감사하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의지하는 삶, 지금처럼 신뢰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중년 부부들은 헌신, 애정, 경제력, 의사소통, 성생활, 갈등해소, 신뢰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부친밀감이 형성 및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을 때 부부는 안정되고 친밀함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중년 부부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부부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선택코딩 결과 핵심범주는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선정하였으며 속성은 ‘정도’ 면에서 ‘강함’과 ‘약함’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중년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변화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친밀한 부부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친밀감에 대한 중년 부부의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중년 부부의 친밀감의 요인 및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40~64세의 중년 부부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결혼생활기간이 18년~32년으로 전체 평균 23년 8개월이며, 청소년기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 12명, 남성 5명이다. 본 연구는 중년 부부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을 선정하여 본인 동의를 받고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시간은 1회당 90분~120분 내외로 진행되었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녹취하였다.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의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에서는 개념 및 범주화를 하였고, 축코딩에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을 하였으며,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발견하여 이야기 윤곽을 기록하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의 관련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Vivo R1을 통하여 개방코딩에서는 181개의 개념, 40개의 하위범주,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축코딩에서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의 인과적 조건은 ‘내적 동기’, ‘결혼을 선택’이었고, 중심현상은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이며 이에 대응하는 맥락적 조건은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 ‘배려와 헌신’이었다.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이었고 중재적 조건은 ‘성생활’, ‘애정’이었으며 결과는 ‘노력하는 부부’, ‘이해하는 부부’, ‘의지하는 부부’로 나타났다.

셋째, 과정분석에서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을 시간의 경과 속에서 분석

하였다. 참여자들은 ‘보살핌의 단계’,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 ‘대안찾기 단계’,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라는 4가지 단계를 경험했다.

‘보살핌의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중년 부부로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배우자의 행동과 서로에게 맞춰주고 챙겨주는 행동, 특히 아플 때 내 곁에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행동들로 나타났다.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배우자와 서로 대화하며 수용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으로 배우자를 더 챙기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매일 옆에 함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든든함을 주었고 배우자의 존재 자체로서 부부관계에서 힘이 난다고 하였다.

‘대안찾기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취미를 함께하는 등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위해 서로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인정하였으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중재적 조건인 성생활이나 애정에 따라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는 갈등해소를 하고 더욱 견고해진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니 부부가 운명적인 관계이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노후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로를 위하고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하며 서로 신뢰하면서 지금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다.

넷째,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분석결과에 의해 중년 부부의 친밀감 과정에 대한 핵심범주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년 부부의 결혼생활동안 경험하는 친밀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년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논의

본 연구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은 ‘배우자를 신뢰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파악되었다. 본 장에서 연구결과를 통해 발견된 중

년 부부의 친밀감 요인 및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이었으며 인과적 조건은 ‘내적 동기’, ‘결혼을 선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하위범주에는 ‘매력을 느껴 가까워짐’, ‘결혼을 결정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결혼생활 동안 나타난 친밀감 요인 및 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살핌의 단계’, ‘부부로서의 삶을 재결단하는 단계’, ‘대안찾기 단계’, ‘성숙한 행복 경험의 단계’인 4단계로 분류하였다. 각 단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행동변화와 연속성을 나타냈다. 분석과정은 근거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나타난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을 살펴보고, 중재적 조건인 ‘성생활’, ‘애정’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구조와 과정을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은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중년 부부의 정서적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의사소통이며, 정서적 친밀감은 부부의사소통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부의사소통이 큰 영향력이 차지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어졌고, 그로 인해 정서적, 성적, 인지적 밀접함이 커지고, 헌신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윤인지(2016)의 부부친밀감에 자기개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와 윤미혜, 신희천(2009)의 친밀감이 일상사건을 통해 발달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김시양(2017)의 연구결과에서 부부친밀감에 긍정적인 자기개방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 모두 부부가 대화하는 것으로 친밀감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클수록 부부친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참여자들이 친밀하게 느끼게 되는 ‘지지’는 Johnson(2006)의 친밀감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세상과 타인에 대해 위협을 감수할 수 있는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지지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김진아(2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은 성적으로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원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그 말도 할 수 있었다. 박민지(2006)는 성적 자기 의사 결정권이 부부관계에서도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부부관계에서 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였고, 양진선(2004)의 배우자와 함께 느끼고, 긍정적인 밀접함으로

도 친밀하다고 느끼며, Timmerman(1991)의 배우자와 관계에서 수용과 이해를 주고 받으며 배우자에게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참여자들의 추억이 쌓일수록 더 친밀감을 높게 느끼는 경험은 김복곤(2001)과 김미라(2001)의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할수록 친밀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취미나 가치관이 일치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삶이 더 깊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경성, 한덕웅(2003)의 부부가 정서적으로 유사할수록 서로 지내면서 친밀감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년 부부의 친밀감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상황과 전략 수준의 사용정도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전환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부친밀감이 결혼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친밀감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중년 부부의 친밀감 수준은 서로의 노력을 통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오늘날은 가족제도의 변화와 부부관계에 대한 패턴이 변화되어 서로에 대한 신뢰, 배려 및 존중이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밀한 배우자의 유대감과 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부부는 서로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살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서 친밀한 사람과의 질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현대 가족은 대화의 중심도 부부중심으로 변화되었고, 가정의 중심축이 부부관계로 변화되어 부부 간의 유대감과 지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부부친밀감은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해주는 영역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을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중년 부부의 친밀감이 단선형이 아닌 상호작용하면서 순환하며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과 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년 부부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한 것이 부부친밀감임을 알 수 있었다.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이런 부부친밀감이 없이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참여자들은 부부친밀감의 의미가 삶을 함께하는 이유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활력소, 자신감의 원천, 행복자체라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부부친밀감은 결혼생활에서 매우 소중한 의미이며 가치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Gottman(1995)은 부부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감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부부의 의사소통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이혼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95%에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면 부부친밀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은 중년 부부의 부부친밀감을 촉진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지지체계 활성화는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 부부를 위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가족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넷째, 중년 부부가 행복한 부부의 삶을 영위하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친밀감이다. 특히 부부친밀감의 요소인 ‘공통된 가치관’, ‘경제력’, ‘배려와 헌신’, ‘의사소통과 지지’, ‘신뢰’, ‘정서적 교류’, ‘성생활’, ‘애정’, ‘함께하고 싶어함’, ‘서로를 인정함’, ‘자율성’은 결혼생활에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각각의 과정은 진보와 퇴행을 반복하면서 나아가고 부부관계는 단계가 되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완성해가는 진행형의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가족서비스, 가족연구 분야에서 부부들의 갈등 해결을 넘어 행복한 결혼생활 영위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 나타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관한 사항은 중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영역에서 활용할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령화 사회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부부중심의 기간이 길어진 우리나라에서 부

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통적 가족가치에서 정서적 지지자로의 부부관계 가치관의 변화, 동반자적 관계로의 부부관계 변화 등 변화하는 부부관계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수가 17명이고 이들의 주관적 체험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양적·질적 병행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자 (2007).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및 자아분화와 부부갈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덕 (2005). 부부의 권력유형·결혼만족도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기숙 (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본진 (2008). “중년 여성의 극복력, 희망, 부부친밀감 및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 17(4), 421-430.
- 권석만 (2018).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오균, 허준수 (201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47, 7-30.
- 김경자 (2007). 결혼 그리고 가족. 서울: 구상출판사.
- 김경진 (2011).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길현, 하규수 (2012).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2(5), 256-271.
- 김남연, 양난미 (2014).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33(1), 25-50
- 김남연 (2013). 한국인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한 부부관계 척도 개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배, 권중돈 (2000).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 (2006).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과 부부의사소통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라, 하영운 (2020). 중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1(2), 31-51.

- 김미라 (2001). 부부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원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 (2001).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곤 (2001). 중년부부의 친밀감 회복을 위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화 (2012). 중년기부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민, 이기춘 (2000). 용의 심리학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2015).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 15(10), 253-266.
- 김승옥, 정혜정 (2013). 기혼남녀의 마음챙김과 일치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 21(2), 203-229.
- 김시양 (2017).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기개방과 공감능력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 (2012). 한국과 중국 중년기 부부관계 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3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연진 (2012). 한국형 은퇴준비 척도 타당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정 (2009). 중년 부부의 삶의 의미: 코오리엔테이션 모델적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의진 (2014). 중년 부부의 부부갈등, 여가경험,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순 (1996).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애순, 윤진 (1995). 은퇴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은퇴는 위기인가. 한국노년학, 15(1), 141-158.
- 김애순 (1991).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중년기 위기의 시기확인 및 발달과정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미 (2014). 신혼기 여성의 결혼준비 및 결혼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2014). 국내 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K-beauty' 성장에 따른 SWOT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 (2016). 정서표현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최정혜 (1990).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부모-성인자녀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 논문집, 5, 161-175.
- 김현재 (2007). 원가족 규칙과 분화 및 양성평등의식이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일 (2008). 부부 의사소통이 가족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2009).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38-539.
- 노익상 (2002). 한국도시 기혼남녀의 배우자 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지현 (2015).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지은 (2015). 도보여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양성은, 김해금, 천희영, 권영인, 조한숙 (2012). 가족관계, 서울: 창지사, 29-30.
- 박남숙 (2000).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만숙, 연문희 (2002). 부부성장 집단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3(2), 337-364.
- 박민자 (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박민지 (2006).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 사소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봉순 (2010). 기혼 남녀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순, 김영희 (2010).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대한가정학회, 48(9), 1-11.
- 박상화 (2017). 기혼자의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과의 관계: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우 (2011). 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모형 탐색: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호 (2001).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2011). 은퇴한 남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이인수 (2015).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 23(2), 381-400.
- 박종원 (2020). NVivo R1 (NVivo release 1):Matters of Why CAQDAS(컴퓨터를 활용한 자료 분석). 서울: 글로벌 콘텐츠.
- 박평식 (2009). 부부친밀감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선아 (2009). 중년기 남성의 부부친밀감이 생활만족도 및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200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경옥 (2017). 고등학교 청소년의 <만다라 컬러링> 효과에 대한 사례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말희, 이정우 (1986). 도시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4(1), 33-47.
- 성영모, 오제은, 박승민 (2013). 은퇴에 관한 국내 연구경향분석. 가족과 상담. 3(2),

39-56.

- 신계수, 조성숙 (2011).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1(11), 296-312.
- 신경림, 박선영 (2004). 여성 요실금 대상자의 골반근육 운동 효과 연구. 대한여성건강학회, 5(1), 91-111.
- 안상진 (2016). 근거이론 방법론을 활용한 정보교사의 프로그래밍 교육전문성의 구조와 형성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태용 (2013). 중년기 한국인 적응유연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상담학회, 14(5), 2,751-2,781.
- 양진선 (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제은 (2013). 중년, 위기인가? 전환점인가? 중년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현상과 인식, 37(3), 141-166.
- 오태균 (2005). 중년 남성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 교육적 과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63-86.
- 옥선화, 정민자, 고선주 (2010).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 우명순, 임은자 (2010). 중년기 기혼 남녀의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연구-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 16(4). 393-415.
- 우명순 (2008).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관한 연구: 자아정체감, 부부의사소통, 양성평등의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순희 (2017). 황혼이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 (2010). 가족관계학, 경기: 교문사.
- 유희남, 김영희 (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 19(3), 141-158.
- 윤미혜, 신희천 (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Vol. 23 No.1.
- 윤인지 (2016). 기혼남녀의 애착안정성, 자기개방, 배우자지지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 (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경성, 한덕용 (2003). 친밀한 관계에서 양자간 정서반응의 유사성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33(4), 235-249.
- 이기석 (2015).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목회돌봄 방안.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성, 김영천(2012).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학회, 20(2), 1-26.
- 이동숙 (2008). 부부성장 집단프로그램이 개인 및 관계 성장에 미치는 효과: 중년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16(1), 81-111.
- 이동숙 (2006). 중년기 부부성장 집단프로그램.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 (1997).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 관계. 성평등연구, 1(3), 279-288.
- 임선영 (2014).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곤란이 폭식과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송은 (2008). 도시 단독가구 노인의 부부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부부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영, 임순연 (2014). 노인유사체험 후 노인에 대한 생각 태도 및 변화 : NVivo를 이용한 질적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35-436.
- 이영림, 이권철 (2020). 실종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론기사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4), 91-100.
- 이영희, 이윤주 (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 분화, 부부친밀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43-58.
- 이인수 (1986). 결혼만족척도의 타당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 최해경 (2004).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사.
- 이영희, 이윤주 (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 분화, 부부친밀감이 결혼안정성에

-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43-58.
- 이정은 (201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코칭역량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은 (1999).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연, 김지현 (2014). 중년기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자녀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26(4), 1131-1149.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15(4), 93-111.
- 정문경, 김병석 (2012). 마인풀니스가 지각된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6), 2,589-2,606.
- 정옥분 (2013).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13).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사. 서울: 학지사.
- 조원덕 (2013). 성인자녀가 독립한 중년여성의 부부친밀감: 현상학적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숙 (2012). 중·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혜성, 하은영, 서애은 (2017). NVivo를 활용한 6차 산업화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50, 101-114.
- 최광현, 선우현 (2016). 인형치료: 상징체계의 활용과 적용모델(2판). 서울: 학지사
- 최규련 (2015). 부부문제와 부부상담. 서울: 신정.
- 최규련 (2004). 이혼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상담적 접근.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논문 자료집, 49-61.
- 최연우, 백용매 (2010).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친밀감 및 고부갈등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7(2), 145-164.
- 최은영 (2015).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호 (2014). 근거이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 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수행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하태희 (2012).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구축.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황경애 (2001). 부부의 의사소통 관련 가족복지향상 대안에 관한 고찰. 진주산업대학교 논문집, 40, 91-105.

Bagarozzi, D.A. (2001). Enhancing intimacy in marriage, Branner- Rouladye. Tylor & Forancis group. USA.

Blandon, A. Y. (2005). Marital intimacy and family subsystems: Links with coparenting, parenting, parental well-being and sibling's compliance. The University of Michigan: Doctoral dissertation.

Broucke, S. V., Vertommen, H. & V and erylcken, W. (1995).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marital intimacy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4, 285-290.

Caltabiano, M., & Caltabiano, N. (2006). Resilience and Health Outcomes in the Elderly. Paper presented at the 39th Annual Conference of the Australian Association of Gerontology, Sydney, NSW.

Carter, E. A. & McGoldrick, M.(1980). The Family Llife Cycle. 김유숙 (2002).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Charmaz, K., (2006).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2nd), Thousand Oaks, CA: SAGE.

Clark, M., & Reis, H. (1988). Interpersonal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609-672.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Collins, Gary R. (2008). Christian Counseling(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종합상담 안내서). 한국기독교상담 역. 서울: 두란노서원.

- Cummings, E. M., & Davie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 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1), 31-63.
- Erikson, E. (1994).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iddens, A., 황정미, 배은경 역 (1996).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 Glaser, B. G.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s*. Sociology Press.
- Gottman, J. M. (1995). *The analysis of change*.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ould, P. R. (1978). *Transformation: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 Hatfield, E. (1984). The danger of intimacy. in erlaga(Ed.),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relationships*(207-220). New York: Praege.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David McKay Company.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Johnson, S. M. (2006).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박성덕 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2 006).
- Jung, C. G. (1954).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psyche*. Princetion: Princetion University Press.
- Kirby. J. S., Baucom D. H. & Peterman M. A. (2005). Aninvestigation of unmet intimacy needs in marital relationships. *J. Marital Fam Ther.* 31(4), 313-32.
- Larson, J. H. & Holman, T. B. (1994).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2), 228-237.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pp.18-20). New York:Ballantine Books.
- Lincoln, Y. S. & Guba, E. G.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 Jossey-Bass.

- Lippert, T., & Prager, K. J. (2001). Daily experiences of intimacy: A study of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8, 283 - 298.
- LongLynn L, Mark E Yong(2009). *부부상담과 치료(2판)*. 이정연 역. 서울: Cengage Learning.
- Mace, R. (1976). *Trafalgar Square: emblem of empire*. Lawrence and Wishart.
- McAdams, D. P. (1985). Motivation and friendship. In S. Duck & D.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85-10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iles, M.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 book*. 박태영, 박소영, 반정호, 성준모, 은선경, 이재령, 이화영, 조성희 공역(2009). *질적자료 분석론*. 서울: 학지사.
- Milliken P.J. & Schreiber S.R. (2001) Can you 'do' grounded theory without symbolic interactionism? In: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eds S.R. Schreiber & P.N. Stern), pp. 177 - 190.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Mills, B. & Turnbull, G. (2001). After trauma: why assessment fo intimacy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medico-legal reports.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6, 299-308.
- Moss, B. &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31-37
- O'Brien, M. and Peyton, V. (2002). Parenting attitudes and marital intimacy: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6, issue, 2, June, 118-127.
- Oden, T. C. (1974). *Game free: A Guide to the meaning of intimacy*. Harper Collins.
- Olson, D. H. (1981).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Prager, K. J. (1995). *The psychology of intimac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arsons, T. (1959).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Free

Press.

- Register, L. M., & Henley, T. B. (1992). The phenomenology of intimac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 467-481.
- Robles, T. F., & Kiecolt-Glaser, J. K. (2003). The physiology of marriage: Pathways to health. *Physiology and behavior*, 79(3), 409-416.
- Ryan, L., & Caltabiano, M. L. (2009).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resilience in midlife scale (RIM scale). *Asian Social Science*, 5, 39 - 51.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aefer, M. & Olson, D. (1981). Assessment of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0), 47-60.
- Sloan, S. Z. & L'Abate, L. (1985). Intimacy. In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ed. L. L'Abate. IL: The Dorsey Press, 405-430.
- Snyder, D. K. (1997).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 (MSI-R)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ternberg, R. J., & Grajek, S. (1984). The nature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345-356.
- Stern, P. N.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1), 20-23.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Talmadge, L. D., & Dabbs, J. M. (1990). Intimacy, conversational patterns and concomitant cognitive/emotional processes in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373-488.
- Timmerman, G. M. (1991). A concept analysis of intimacy. Article in *Issues in*

- Mental Health Nursing, 12(1): 19-30.
- Tolstedt, B. E. and Stokes, J. P. (1983). Relation of verbal, affective, and physical intimacy to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4), 573-580.
- Waring, E. M. (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85-192.
- Waring, E. M., & Chelune, G. J. (1983). Marital Intimacy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2), 183-90.
- Ward, R. A., & Spitze, G. (1998). Sandwiched marriages: The implications of child and parent relations for marital quality in midlife. *Social Forces*, 77, 647 - 666.
- White, Jerry. (1995). *The Christian in Mid Life*. 서울:네비게이토출판사.
- Wynne, L. C. (1984). The epigenesis of relational system: A model for understanding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43(4), 297-318.
- 若林 功 (2015), グラウンデッド セオリー アプローチ:労働研究への適用可能性をを
探る, 日本労働研究雑誌 665.

<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질적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학 박사과정을 공부한 송경옥입니다.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의 친밀감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자는 중년기 부부의 친밀감 요인과 과정 등을 밝혀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중년기 부부관계의 친밀감 요인과 과정에 관해 알아보고자 다양한 질문을 할 것이며 1인당 90분 이상 면담을 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구참여자가 구술한 모든 내용은 연구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 또는 기호로 표시되어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신 내용은 중년기 부부의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서비스 및 부부상담과 교육 등의 기초자료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과제명 :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질적 연구

지도교수 : 정민자(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연구자 : 송경옥(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학전공)

연락처 : sjam99@hanmail.net

10.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이십니까?

-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11. 첫째 자녀의 출산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결혼 후 1년 이내 ② 결혼 후 1년 ~ 2년 이내 ③ 결혼 후 2년 ~ 3년 이내
④ 결혼 후 3년 ~ 5년 이내 ⑤ 결혼 후 5년 ~ 7년 이내 ⑥ 결혼 후 7년 이상

12. 귀하 자녀의 성별과 연령은 어떠합니까?

- 첫째자녀 ① 남(세) ② 여(세)
- 둘째자녀 ① 남(세) ② 여(세)
- 셋째자녀 ① 남(세) ② 여(세)
- 넷째자녀 ① 남(세) ② 여(세)

13. 귀하는 배우자와의 침실 사용은 어떠합니까?

- ① 같은 방 ② 각 방 ③ 기타

14. 귀하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조(외조)부모 ⑥ 시부모/장인장모

II. 인터뷰 질문지

1	<p>당신은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배우자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p>												
2	<p>당신은 배우자의 어떤 매력이 좋아서 결혼했나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p> <p>2-1. 지금까지 그 점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2-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0</td> <td style="width: 10%;">10</td> <td style="width: 10%;">20</td> <td style="width: 10%;">30</td> <td style="width: 10%;">40</td> <td style="width: 10%;">50</td> <td style="width: 10%;">60</td> <td style="width: 10%;">70</td> <td style="width: 10%;">80</td> <td style="width: 10%;">90</td> <td style="width: 10%;">100</td> </tr> </table> <p>2-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2-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p>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	<p>당신은 아내(남편)로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말씀해 주세요.</p> <p>3-1.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3-2.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3-3.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4	<p>부부관계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p> <p>4-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4-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4-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4-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5	<p>부부관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결혼기간 중 후회되거나 미련으로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p> <p>5-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5-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5-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5-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p>당신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언제 기쁘거나 즐거운지, 슬프거나 화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배우자와 가장 많이 주고 받는 감정(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p> <p>6-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6-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6-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6-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7	<p>당신은 배우자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나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p> <p>7-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7-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7-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7-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8	<p>당신이 배우자에 대해 가장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p> <p>8-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8-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8-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8-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9	<p>당신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함께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취미와 여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p> <p>9-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9-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9-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9-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10	<p>당신은 배우자와 부부 간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p> <p>10-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10-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0-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0-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11	<p>당신은 배우자와 성적 친밀감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p> <p>11-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11-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1-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1-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12	<p>당신이 배우자와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p> <p>12-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12-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2-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2-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13	<p>당신이 부부친밀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p> <p>13-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13-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3-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3-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14	<p>당신은 배우자가 어떻게 해줄 때 친밀감을 느끼는지 말씀해 주세요.</p> <p>14-1. 지금까지 그 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p> <p>14-2. 현재 그 정도를 점수화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4-3. 그 부분에 대해 초기의 점수는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0~100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p> <p>14-4. 현재와 초기 간에 점수차이가 있는데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p>																						
15	<p>당신이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p>																						
16	<p>당신은 부부관계의 행복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가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전혀 행복하지 않음</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보통 이다</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아주 행복함</td> </tr> <tr> <td>0</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d>50</td> <td>60</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able>	전혀 행복하지 않음					보통 이다					아주 행복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행복하지 않음					보통 이다					아주 행복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7	<p>중년기의 부부친밀감에 대해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p>																						

♡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timacy of the Middle Aged Couples

-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

Song, Kyung-ok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Major Advisor: Jung, Min-ja, Prof.

Families of modern Korea move to a couple-centered system but since there is a problem of inner conflict and adaptation in marital relationships, their marital relationship after middle age is unstable. Simply put, the divorce rate of elderly couples increased, so it takes up 37.2% of all divorces. This shows that now is the period how much intimacy and conflict management skills are required, which are stable elements of marital relationships after middle age.

Thus, this study would analyze how middle-aged couples form intimacy, the process, the elements of the formation of their intimacy, and strategies to find a theoretical basis and present the grounds for positive factors operating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middle-aged couple intimacy, the counseling site of exploring the processes and the improvement of marital intimacy.

The researcher selected middle-aged couples aged 40-64 as study participants for in-depth analysis and collected data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from March through April 2021. After getting the study participants' consent, the interview content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contents. According to Strauss & Corbin's (1998) data analysis metho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through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First, in open coding, 181 concepts, 40 sub-categories, and 16 higher categories were drawn. In axial coding, as a result of an analysis with a paradigm, the casual conditions of middle-aged couples' intimacy were 'internal motive' and 'choice of marriage'; its contextual conditions, 'common values,' 'economic power,' and 'caring and dedication'; and the central phenomena,

'communication and support,' 'trust,' and 'emotional exchang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o control the phenomena were 'wanting to be together,' 'recognizing one another,' and 'autonomy,' and mediating conditions that acted on promoting and inhibiting thes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sexual life' and 'affection.' The results were 'couple that makes efforts,' 'couple that understands each other,' and 'couple that depends on each other.'

Second, through process analysis, the process of middle-aged couples' intimacy included 'the stage of caring,' 'the stage of redetermination of a life as a couple,' 'the stage of finding a solution,' and 'the stage of mature happy experience.' In 'the stage of caring,' the behaviors in which the participants could feel intimacy as a middle-aged couple included the spouse's acts of treating nicely, keeping pace and caring, and especially, taking care of them by their side with love when they were sick. In 'the stage of redetermination of a life as a couple,' they felt being accepted, talking to each other with the spouse and would care for and love the spouse more, grateful for him or her in spite of difficulties. In addition, the spouse being by their side every day gave confidence, and they gained strength in their marital relationship from the spouse.

In 'the stage of finding a solution,' for a positive marital relationship, like having time together and having the same hobby, the participants came to know and recognized each other more specifically and showed an autonomous stance for their happiness. In this step, they could proceed to the stage of growth according to the mediating conditions, sexual life or affection. In 'the stage of mature happy experience,' they resolved conflicts, sympathized with each other in the marital relationship that became solid, came to realize that the couple is a fateful relationship, viewed from the mind of understanding the spouse and planned their later years with their spouse. In addition, they cared for each other, made efforts for happiness and would live as they did, trusting each other.

Third, the core category in selective coding was 'trusting the spouse and understanding and depending on each other through an emotional exchange.'

Conclusions were drawn through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marital intimacy allowed middle-aged couples to maintain their marital life with positive interaction. Marital intimacy allowed them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marital life, and without it, the marital relationship cannot be maintained.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marital intimacy would be the reason for living together, a vital force that makes you feel alive, a source of confidence, and happiness itself. Through this, for the

participants, marital intimacy had a very precious meaning and value in their marital life.

Secon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could be found in a marital relationship also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vitalization of an effective communication program for couples w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arital intimacy.

Third, this study noted that 'wanting to be together' and 'recognizing one another' wer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o promote middle-aged couples' marital intimacy. However, the diversity of the methods to meet the desire to be together and the desire to be accepted was insufficient. The revitalization of local support systems can provide power to improve marital intimacy to meet these needs. Thus, requests are made for family education, family counseling, and family activities programs for middle-aged couples.

Fourth, marital intimacy plays a mediating role for middle-aged couples to lead a happy marital life. In particular, the elements of marital intimacy, including 'common values,' 'economic power,' 'caring and dedication,' 'communication and support,' 'trust,' 'emotional exchange,' 'sexual life,' 'affection,' 'wanting to be together,' 'recognizing one another,' and 'autonomy' allowed them to maintain happiness in their marital life. These elements do not sequentially affect each other but make positive interactions simultaneously. Each process advances through repeated progress and regression, and a marital relationship

can be said to be a progressive psychological process completed throughout their life.

The above results of the study would provide data on the intimacy experienced by middle-aged couples during their marital life and help broadly understand how they behave in the process of maintaining their marital life.

Thu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it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means for couples counseling intervention and prepared important base materials that could help couples lead a happy marital life as well as resolving their conflicts in family counseling, family education, family services, and family research areas.

Key Words: Middle age, Marital relationship, Intimacy, Grounded theory